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사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자가 오르면 오른금리로 내림때는 약정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중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0월 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불법의 큰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지혜로 건너간다.
〈지도론〉

법회 안내

종로 경승실 (02)732-7613
정기법회 매월 8 · 15일(음) 정오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4시
토요법회 매주 토 오후6시

미타사 (02)662-4736
신중기도 매월1 · 3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철야참선 매주 토 저녁10시

광주 만덕사 (062)652-4920
연등법회 매월1 · 3일(음) 오전10시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중 ·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7시

문빈정사 (062)222-2202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5시
합동정진법회 매월 넷째주 일 오전10시

관음사 (062)223-7666
거사림법회 매주 월 오후7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6시30분
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지재암 포교당(0351)865-514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중 ·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5시

진주 월경사 (0591)53-641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3일 오전11시
학생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합창단법회 매월 15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조-태 통합논의 진일보

특별교구 · 법인구성안등 거론…월주 총무원장 선암사 방문

조계종과 태고종은 통합될 수 있을까.

해묵은 논쟁이면서도 한국근대불교사상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터져나올 때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곤 하는 조계 · 태고종의 통합문제가 또다시 회자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조계 · 태고 통합분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의 근저에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밑받침이 되고 있다.

첫째는 조계종 종회에서의 정휴스님 발언. 조 · 태분규사찰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정휴스님은 지난달 22일 조계종 제118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실무협의 성과를 보고하는 중에 "양 종단 대표가 만나 몇가지를 합의중"이라며 "조계종 종헌 9조 1항을 손질해 양 종단을 통합하되 현재까지의 태고종 승적을 인정해 주는 안"을 거론했다. 정휴스님은 통합안 이외에도 △태고종을 조계종의 특별교구로 설정하는 안과 △89년 양 종단이 합의했던 법인구성안 등을 덧붙여 언급했다. 정휴스님은 이에앞서 지난 4일 조계종의 대표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선암사를 방문해 이 또한 눈길을 끌었다.

둘째는 지난 16일 태고종 총무원장 서봉스님이 핵심측근인 총무부장 자월스님과 태고 · 조계 사찰분규종식위원장 이규범 법인행정원장을 대동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한 것. 이자리에서 서봉 총무원장은 "이제는 갈라져 싸울 때가 아니라 양 종단이 합쳐야 된다"며 통합에 대해 강조했고 월주 총무원장은 "연구해 볼만한 일이다. 만일 통합된다면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며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셋째는 회엄사 진신사리 친견법회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남에 내려온 월주 총무원장이 지난 달 23일 선암사를 방문, 경내를 둘러보고 대중스님들과 환담을 나눈 사실. 조계종 총무원장의 선암사 방문은 비록 불시에 이루어진 비공식 방문이었지만 그 자체가 '정화이후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분규사찰의 대표격인 선암사가 최근 순천시와 함께 '선암사 불교문화보존회'를 구성하고 5개년 중창불사계획을 발표했다. 총무원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독자 운영을 하고 있는 선암사는 오는 98년까지 당우 30여동을 신축 · 복원하고 대규모 차밭을 조성하는 등, 그동안 분규로 인해 퇴락해 있는 사찰을 일신해 선종본찰로서의 본래 면목을 회복시킨다는 것. 조계 · 태고종의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선암사의 역할 여하에 달려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암사 불사계획의 속내용 캐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 · 태고종은 통합했을 때의 '득'과 '실'을 조심스럽게 재고 있으며 구체적 행보에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통합논의가 진일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경숙 기자〉



단식

물국사 주지 설조스님은 지난달 27일부터 경내 총지당에서 고속철도 우회와 경주 보존을 위한 무기한 단식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5면〉

법인대책위 구성

조계종 118회 종회

조계종 제118회 임시중앙종회는 지난 28일 '산하법인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 18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학원, 대각회 등 조계종 관련 법인에 대해 조사 등의 일을 담당할 법인대책위는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르지 않고 있는 이사와 임직원 징계문제와 함께 사설사암 문제도 위임받아 앞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조계종 종회는 또한 종회의원 21명과 집행부 간부들로 '96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실태 파악위원회를 구성했다.

〈28일 현재 · 차주상보〉

국보 10% '안전 이상'

문체부 국감서 밝혀…훼손 · 도난예방대책 세워야

국보 10개중 한개꼴로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2백85점의 국보중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국보(석조-목조 문화재)는 전체의 10%에 가까운 26점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6일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진무 문화재관리국장은 박종웅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국가지정문화재 4백25점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석조문화재 1백44점, 목조문화재 94점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국보는 26점"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문체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관리소홀로 93년이후 지금까지 불과 2년반 동안 모두 52건의 문화재 도난사건이 발생, 9백9점의 중요 문화재가 분실됐으나 3백25점은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찰문화재에 대한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 지난 1월 송광사에서 보물 1천43호인 '16국사진영'이 도난당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9건의 사찰도난사건이 발생, 탱화 등 35점의 문화재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성보관리의 무관심과 관련, 박종웅의원은 "지난달 8월에 있었던 폭우로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경관이 누수피해를 입은 것은 문화재관리국의 업무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표본"이라며 성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현대불교 창간 1주년 2大 기획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 애독자 사은 연속 법회"



◇ 월하스님 ◇ 혜암스님 ◇ 승찬스님 ◇ 원담스님

매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

한국불교 4대총림 방장스님들의 사자후, 미혹의 중생고를 벗어나게 하는 지혜의 법담을 들으러 떠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1주년을 맞아 그간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4대 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습니다. 중요의 계절에 큰스님들의 사자후로 마음의 가난을 벗어던지는 친견 법회에 독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차 : 영축총림 통도사 10월 14일(토) 월하 방장스님 친견
△ 2차 : 해인총림 해인사 10월 28일(토) 혜암 방장스님 친견
△ 3차 : 덕숭총림 수덕사 11월 4일(토) 원담 방장스님 친견
△ 4차 : 조계총림 송광사 11월 18일(토) 승찬 방장스님 친견

※ 각 회차별 당일코스이며 오전 7시 조계사 정문앞에서 출발합니다.

▨ 동참방법 · 접수안내

△ 개인 · 단체동참 가능하며 매회 1백50명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제일은행 계좌(131-10-000570)로 동참금 2만원을 입금하시고 수미산여행사 국내사업부(732-0181~3)로 연락주시면 좌석이 배정, 접수마감은 해당일 3일전.
△책방 '여시아문(737-0695)'에서도 접수받으며 현대불교 편집국(722-4162)에서도 안내해 드립니다.

감동적인 신행이야기를 찾습니다

원고지 30매…11월25일 마감

이시대 불자들의 바른 신행지표를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하셔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행수기 공모 요강

△ 공모내용 : 생활속 수행이야기 · 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접수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자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 유마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종단협의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본사 사장상 : 상장, 상금
· 특별상 : 상장, 상품
· 응모자전원 : 기념품 증정

고객과 함께, 자연과 함께



금호건설은 고객의 꿈을 모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호건설은 건설시장의 수많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축적으로 고객과 함께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신뢰받는 금호타운의 건립외에도 영종도 신공항 건설사업, 지하공간 개발사업, 각종 환경 관련산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더 좋은 미래환경을 만들어 가는 금호건설 – 도시의 입체적 활용, 종합레저타운, 새로운 생활환경의 조성 등 21세기형 미래공간의 건설을 통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는 금호건설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켜봐 주십시오.

금호건설

■건설 전부문 ISO 9001인증획득

사 설

회기 연장한 조계종 종회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앙종회가 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듯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중앙종회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의 입법기구이다. 조계종의 중추적 핵심기관으로서 불교중흥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중앙종회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욱 컸었다. 고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낌없이 시주하여 교단을 외호하여 준 수 많은 신도들의 시은을 깊이 느끼고 있는 모습도 찾기 힘들었다. 있었다면 종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그로인한 파행의 연속이었다. 혹자는 이런 모습에 실망하여 '무비판적으로 서구제도를 모방함으로써 승가를 타락시키는 온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계종은 이번 제118회 임시종회부터 종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정해진 회기를 채우고도 모자라 회기를 연장하여 종무 전반에 관한 현안 문제를 다룬 것은 일찍이 유래가 없었던 일이다. 또한 이전 종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사문제와 관련된 금품수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질타하고 총무원의 해명을 요구한 것도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종회의원들도 이전 종회와 달리 종헌·종법에 의거해 사안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 점은 적어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란 점에서 세인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 개혁회의 이후 두드러지게 변하고 있는 종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불교의 발전을 기대하여 보는 것도 이제 한갓진 망상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종회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시정해야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일부 종회의원들이 발언권을 독점하고 있거나 정확한 자료분석에 의한 질의보다 소문에 의거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다. 종무에 관한 질의 때에도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자아 과시적인 경쟁적 질의가 많아 회의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도 시정되야 할 사항이다.

또한 국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본받아 종단 문제에 따른 종회 특별위원회가 많은 것도 일의 본말을 전도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집행부가 허약한데 따른 종회의 세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어려운 일은 무조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려는 종회와 이에 의지하려는 집행부의 예속성을 심화시키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종회가 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인 일 처리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적어도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란 점이나 조계종의 영향력이 한국 불교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할 때 종회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는 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그에 따른 능동적인 접근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요망된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만큼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직간접적 요구가 팽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따른 보다 발전된 종회로 거듭날 때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 인류의 정신을 밝혀주는 불교가 되리라 본다.

현 대 만 평

박 구 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열 린 마 당

종립학교 포교대책

현장에서 – 고 우 익 〈능인고 교법사〉



미래불교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의 청소년 불자가 그들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불교청소년의 모습은 내일의 불교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차라리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싶다.

그동안 얼마나 메아리 없는 외침을 외쳤던가. 몇몇 청소년 포교에 뜻을 둔 이들이 정말 외롭고 힘겹게 그 자리를 메꾸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청소년 교화 황금어장 교법사 처우 개선 서둘러야"

다행히 개혁종단 출범과 함께 청소년 포교에도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청소년의 해 지정(96년)' 청소년 법요집 발간, 종립학교 운영현황 자료집 발간, 전국적인 불교청소년 단체의 조직 등 산적한 일들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포교의 장은 바로 학교이다. 단위 사찰에서 20명~30명의 청소년 불자를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가는 해 본 사람은 다 느낄 것이다. 그러나 학교는 수천명이 집단적으로 모여 하루종일 선생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곳이다. 포교의 황금어장은 바로 여기다. 교화의 실천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에서 학교 포교의 대표적인 곳은 바로 종립학교이다. 그곳에서 막중한 교화 사명을 수행하는 이는 소위 '교법사'라 불리우는 선생님(?)들이다. 그러나 종단내외에서 무책임하게 불리우는 그 교법사는 과연 종헌·종법에나 학교법인 정관 혹은 규정에 어떤 근거가 있나 어디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에 따라 예우나 대우, 지위등도 각양각색이다. 어느 종립학교에도 교원 조직표상에 아예 교법사직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저 우리끼리 필요에 따라 만들어 그때 그때 역할을 극대화시키기도 하고 또 묻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법사로 불리우는 그들은 그저 원력과 신심 하나만으로 삼보정재를 털어 지은 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반문하며 앞만 보고 뛰는 것이다.

이제 문제점은 드러났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깨침' 하나를 등불로 청소년 교화의 횃불을 들어 올려야 겠다.

운영 현황

최근 발간된 '종립학교 운영현황' 통계에 따르면 신입생중 불자학생이 과반수가 넘지 않으며 이 비율은 졸업시까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하는 종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를 신행하는 학생의 수가 중학교 37.6%, 고등학교 24.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기독교등 타종교가 오히려 5.8%나 많아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 수록 숫적열세는 더욱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집에서는 주된 원인을 몇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현 종립학교 교법사(학교당 1.8명)수의 부족과 교학·일반수업은 물론 포교활동까지 전담해야 한다는 것. 두번째, 각종 수련대회, 수계식을 비롯 통상적인 행사이외에는 새롭고 특별한 신행프로그램의 부재. 세번째는 교직원의 신심부족으로 인해 각종 불교신행활동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교학수업마저 타교과목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행프로그램 절대 모자라 교학수업 '입시'에 밀려 소외

불교종립학교 포교활동의 부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신행활동을 교법사만의 몫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교육이 곧 포교'라는 이념아래 재단과 학교간에 청소년 포교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학교는 – 명성여고

지혜와 자비를 바탕삼아 자아완성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명성여고(교장 문회응)는 '수심당'이라는 교내법당을 중심으로 신입생에게 합장과 반야심경 독송등을 필수적으로 익히는 것에서부터 포교활동이 시작된다.

특히 과반수가 넘는, 종교없는 학생을 비롯 기독교등 타종교 학생에게 불교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지니도록 하는 인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적 소양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불교교육으로 인해 명성여고는 입학당시 7%였던 불자학생의 수가 졸업시에는 32%로 증가한 반면 기독교학생의 경우 35%였던 것이 2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야심경 독경등 인성교육 불자 7%입학 졸업땐 32%

학내 신행활동뿐만 아니라 교내에 있는 타 학교내 불교학생회와 연합법회, 불교예술제등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하게 하고 있다.

또한 4년전부터 이웃주민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심회는 학생들과 함께 사찰순례를 실시하는등 학생들을 불자화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불교를 모르고 입학한 학생들도 3년여동안의 체계적인 신행교육을 받노라면 자연스럽게 불법에 귀의하는 한편 불교적 소양을 지닌 참불자가 된다.

시 론

인간성 짓밟는 학원 폭력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지켜주는 힘의 근본은 인간 사이의 신뢰이다. 상식의 저변이 서로간의 이해와 배려와 관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일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는 그런 사회적 덕성을 훈련하는 장이다.

인간 도덕성의 개발과 사회적 협력의 훈련을 말하는 전통 유교교육조차 권력과 부(富)로 나아가는 통로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지금의 교육은 조선조의 행태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신분제에 의해 묶여 있던 사회적 상승의 제한이 평등과 민주의 이름 아래 명실상부한 기회균등을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과거(科擧) 시험의 과목(?)이 문사적 인문적 교양과는 전혀 다른 행정적 상업적 공업적 제 실무로 전이되었다는 것 정도이다.

대중교육과 전문교육의 근대적 기치 아래 인문적 교양은 실상 뒷전으로 밀려나갔다. 이 사실이 지금의 학교교육의 문제전반과 얽혀 있다. 전문교육의 이념은 각분야에 대한 전문적 실무적 지식을 가리킨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베이컨의 모토는 지식의 철저한 도구화로 이어진다. 누가 더 알려진 지식, 파헤쳐진 지식을 정확하게 익혀 이용할 수 있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된다. 그 지식은 사물과 관계하는 지식이지 사람 사이를 관계하는 지식이 아니다.



한 형 조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그렇지만 중고등학교시절은 하나의 주체로서 사람 사이의 정서적 심리적 연관을 새롭게 형성해야 하는 제2의 탄생기이다. 그런데도 가정과 학교는 성적과 대학진입이라는 당면의 목표로 하여, 그리고 사회는 이 현실적 요구에 영합함으로써 아이들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유보하고 외면한다. 아이들은 생물학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자아의 근본적 분열을 겪는다.

출구 찾지 못한 아이들

우등생들은 거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영악한 아이들이다. 훨씬 인간적이기는 반발하는 아이들이다. 반발은 저항하거나 도피하거나 자학하는 세 가지밖에 없다. 지적 사회적 힘을 획득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있어 저항은 불가능하고 도피는 어렵다. 유일한 길은 자학이다. 그 자학은 자신을 무기력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길로 나타나기도 하고 타인을 파괴하거나 학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둘의 기원은 같다.

삶의 건전한 에너지가 적절한 출구를 찾지 못한 병든 에너지라는 점에서 매저기즘이든 새디즘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방구석에 처박힌 우울증의 아이나 베란다에서 떨어져 내리는 아이들의 매저기즘은 불쌍하긴 하지만 위험하진 않다고 안도하는 것이 어른들이다. 이에 대해 새디즘적으로 표출되는 학생들의 폭력은 면학분위기를 해치므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믿는 것 또한 어른들이다.

창조동력으로 바꾸자

학교 안의 폭력이 이전보다 조직적이고 흉포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을때마다 매스컴과 이른바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내놓는다. 원인은 우리가 진단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있고 근본적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각자가 그 절망적 폭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해자임을 수사(修辭)가 아니라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의 부모는 진정 물어야 한다. 나는 우리 아이를 그 자율적 정서와 이성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내 심리적 만족과 사회적 과시의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학교는 부모의 철없는 이기적 기대에 영합하여 학교의 위신을 세우는데에 급급해 아이를 성적과 대학의 노예로 몰아가지 않는가.

사회는 모든 가치를 일류대학과 그에 이르는 사다리인 성적을 우상화함으로써 가정과 학교를 그 볼모로 잡고 있지 않은가.

최근 한 기업은 학력차별이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발걸음을 떼놓았고, 정부 또한 암기위주가 아니라 인성과 생활의 제 부면을 강조하는 개혁안을 구상했다. 그렇지만 그 개혁이 만일 변모하는 사회적 코드를 따라잡는 발빠른 적응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또다른 형태의 우울과 폭력에 허덕일 것이다.

다가오는 세상의 사회적 코드가 건전하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시계를 되돌려 놓기에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너무 커져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세계화 지구화의 시대는 역으로 가치가 다원화될 수 있는 시대이고, 그렇기에 사적 창조의 공간 또한 다양하게 가능한 시대이다.

적어도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고, 그 바탕 위에서 폭력의 황폐한 에너지를 창조의 동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를 위해 가정과 사회, 학교와 국가가 능동적 자각적으로 교육의 비전을 창출하고 그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호도기회

60년만에 찾아온 을해(乙亥), 복 돼지해 윤달

최고의 윤달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25일부터 윤(閏)8월

오는 25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음력으로 윤(閏) 8월이다.
장의용품 업체에는 수의(壽衣)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다.
반면 예식장 및 이삿짐업계는 예약이 뜸겨 울상이다.
올해는 60년만에 찾아 온 을해(乙亥)년 "복 돼지"해.
하늘과 땅, 남녀 등 모든 음양이 "합일(合一)"을 이뤄 올해 낳는
신생아들은 최고의 사주팔자를 지니며, 윤달에 결혼이나
이사를 하면 해롭고, 수의를 마련하면 재앙이 들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세시풍습중 윤달이 든 해에는 집안의 연로하신 어른께
효심을 전하기 위해 수의를 지어 올리는 미풍양속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무병장수하신다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장례에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러 세상은 변했어도 노부모님에 작은 소망은
누구나 한결같이 간절합니다. 〈서울신문 95.9.18 보도내용〉



수의 가격 조견표

품 명	시중가	행사가	비 고
품4호(마)	640,000	350,000	일반품
품3호(천연마)	1,360,000	680,000	천연마 100%
품2호(보성포)	1,960,000	980,000	대마 수제, 순창 강포
품1호(특손삼베)	4,500,000	2,200,000	특산단지 지정품 특대마 100%

※댁으로방문하여 종류별 비교하여 드립니다.



캐디락 리무진 장의차

*전 회원에게 리무진 이용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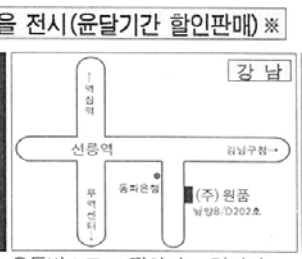
※ 고급제품은 겹 삼베로 제작됩니다.
※ 남자 19가지, 여자 18가지 갖은 수의입니다.
※ 본(주)원품 수의는 특허청 의장등록 제159132호로 등록되었으며 농어촌 특산단지에서 생산된 고급제품으로 품질이 보증됨.

※이조목제기 · 병풍을 전시(윤달기간 할인판매)※



※전 제품을 장기보전용 오동박스로 포장하여 드립니다.

찾아오시는길





장례 토탈 서비스 안내

갑자기 상을 당해 당황하는 상주님들을 위하여
임종에서 장지까지 전과정을 신속하게
무료 서비스합니다.

** 서비스 안내 **
- 국내최초 장례무료 상담전화 개설운영 24시간
- 장례행사 대행(전국체인연결) ■ 묘지상담알선
- 파출부, 도시락(음식)알선
- 현재 평생회원제도 운영中(91년시행)

※ (주)원품은 손삼베 전문업체 입니다.

※수의판매 이익금 일부로 무의탁노인, 청소미화원, 행소니차 사망시 수의를 무료로 드립니다.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일반할부가능

전국취급점모집
공휴일 및 주 · 야 24시간 전화상담받습니다.

본사영업부
(02)566-7676
종로:3673-5226

■광역시
무 산
대 구
인 천:462-3562
광 주:361-1349
대 전:627-9575

■경기도
수 원:216-6336
고 양:913-2181
원 당:915-4097
구 리:557-2166
성 남:721-5782
부 천:323-6484
분당 · 이천: (0342)756-8841
일산 · 파주: (0344)977-0031
김포 · 강화: (0341) 82-2818
안 양: 61-0336
안 산: 80-6690
의정부:876-8872
평 택:655-0966

■강원도
춘 천
강 릉
속 초
원 주

■충청도
천 안:582-3612
온 양:545-1533
청 주
홍 성
대 천
서 산

■전라도
전 주: 85-5130
군 산:452-0386
이 리:832-1944
정읍 · 김제: (0652)231-7694
목 포
순 천
여 수

■경상도
진 주:43-0880
경 주
구 미
포 항
마 산
거 제
진 해

충 무

■제주도
제 주:58-3023

(주)원 품
TEL 566-7676
제1공장 광주(주)반 석
제2공장 (특산단지)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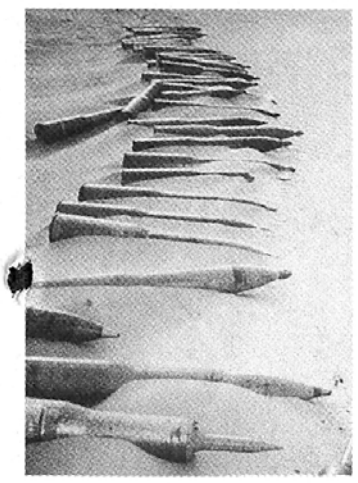
현재 보유량으로도 '지구파괴'

제조·폐기과정 치명적 독성물질 배출
전세계 핵물질·화학무기등 군축 비상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㉗

전쟁무기



◇ 군사관련 활동으로 세계환경의 10~30%가 오염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당한 전쟁은 없다. 정당한 전쟁이란 증오, 잔인, 폭력, 대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부처님은 비폭력과 평화를 가르쳤다. 부처님은 로히니강의 문제로 석가족과 꼴리족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중재해서 전쟁을 방지했고 또한 아자따삿뚜왕이 밧지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소위 정당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는 현대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무기는 잔인, 폭력, 학살을 합리화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오염시키는 증오의 불이다.

그러나 세계의 정부들은 2차대전 이후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규모의 파괴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게 되었다. 90년대 초까지 5만여개의 핵탄두(TNT 130억톤 규모)와 7만톤 이상의 독가스, 수백만톤의 폭약 및 탄약, 4만5천대의 전투기, 17만 2천대의 탱크, 15만5천문의 대포, 그리고 2천척의 전함 및 잠수함을 비축했다. 이들은 전 지구를 파멸하고도 남을만한 과잉 살상력을 지녔다.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에서 해빙이 시작되어 군비경쟁은 약화되어, 1988년 이래 일련의 조약들은 핵과 화학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추가 감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말이 감축이지 제조과정에서 수많은 공해요인을 산출하고 폐기과정에 엄청난 경비와 공해요인 및 폐기물이 발생하는 군비축소가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극화시대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대량의 무기를 그대로 보존시킬 것이다. 설사 내일 당장 핵무기를 병기창에 폐쇄시킨다 해도 그 위험한 폐기물은 반영구적으로 지구를 오염시킬 것이다.

독일의 스텐버그에 있는 평화정책연구소는 세계환경의 질저하의 10~30%가 군사관련 활동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군사활동 가운데 히로시마의 원폭투하도 있지만,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건가운데 하나가 월남전에서의 고엽제 살포이다. 다이독신이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인 고엽제 살포로 월남에서 태아의 절반이 사산되고 기형아 발생율이 전전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합은 월남이 불모의 땅이 되지 않으려면 월남전역에 5억그루의 나무를 심어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군대는 그들의 위용과 군비의 추구과정에서 생태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퍼뜨리고 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독성물질은 사람들이 마시고 관계에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키고, 수중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를 더럽히고, 광활한 토지를 불모지화 한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치명적인 액체성 독성물질의 폐기장이 되어온 군사기지들은 이제 서서히 작동하는 건강에 대한 시한폭탄이 되고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기타 군사장비의 제조, 유지, 비축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이 폐기물에는 연료와 페인트, 용제, 중금속, 살충제, 폴리염화비페닐, 시안화물, 폐놀, 알카리, 화약, 폭발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면 암, 기형아출산, 염색체 손상, 간과 신장, 혈액 및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군사지역의 숫자가 미국의 경우만 해도 1989년 1천5백97개 군사기지의 1만4천4백1개와 부지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관련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가 없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없지만, 남북 모두 상당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아직 해빙의 시대에서 냉전의 한복판에 살고있는 만큼, 정당한 전쟁을 위한 군비경쟁을 늦출 수 없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증오의 불을 끄고 화해길로 나서는 길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단풍따라 깊어가는 불심

산행길·산사의 법회 보람
내장산 단풍 20일경 절정

볼만한 가을산

단풍의 계절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단풍은 예년에 비해 2~3일 빠르다고 한다. 이미 설악산이 정상부터 붉게 물들었다. 명산을 장엄하는 단풍소식은 오대산 북한산 치악산을 따라 남도의 무등산과 두륜산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명산과 고찰을 따라 가을 불심을 키워보자.

▲설악산: 이미 9월 말부터 단풍이 붉다. 설악산하면 으레 떠오르는 신흥사 경내에도 단풍이 볼만하다. 속초 일원에서 열리는 설악제가 9일~11일까지, 강릉의 '영동예술제'가 16일~17일까지 열려 이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오진관광(739-1211) 롯데관광(733-0201) 스마일관광(730-5111)등 관광사들이 설악행 코스로 매일 떠난다.

▲오대산: 역시 이미 단풍이 짙게 물들었으며 월정사, 상원사 등의 코스가 불심을 키우고 있다. 용진신행회(279-1199)의 보궁순례를 동참하는 것도 좋다. 평창의 노성제가 열리는 6일~8일 사이에 노성제와 오대산을 찾는 것도 뜻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소백산·월악산: 10월10일 전후로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다. 소백산은 구인사 계곡과 영춘면 일대 희방사, 비로사 코스등 어느 코스든 단풍길이 열려 있다. 4일~9일까지의 충주 우륵문화제를 거쳐가도 좋은 코스가 된다.

▲속리산: 단풍은 10일을 전후해 절정이며 마침 10일 법주사에서는 신도 5계 수계식(계사 혜정스님)이 봉행된다. 미리 접수를 하고(0433-43-3615) 참가할 수 있다. 또 16일은 설악기도법회(주지 월성스님 설법)도 있어 법회후 새벽산행이 운치있을 것이다.

▲계룡산: 10일~15일경의 단풍이 볼만하고 동학사의 갑사를 잇는 등산로의 단풍길이 좋다. 남매탑의 애절한 전설과 함께하는 이 코스의 끝에서 갑사 동학사 보름법회를 참가하는 것이 보람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9일까지 한밭문화제가 열리는 대전시내도 좋은 볼거리가 가득하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공주에서 백제문화제가 열린다.

▲내장산: 15일~25일까지 단풍의 절정기가 된다. 내장사의 경내에도 단풍들이 불타고 입구의 단풍터널은 일제시대에 매곡스님의 지시로 심어진 토종 단풍나무들이 이루는 장관이다. 내장사가 있는 정읍시가 주관하는 '정읍사문화제'는 19일~22일까지 열린다. 농악경연, 사진전등 볼거리가 많다.

▲토함산·경주남산: 토함산의 단풍과 동해의 쪽빛 바다를 함께 볼 수 있다. 불국사 경내의 단풍은 마치 절을 태울 듯하다. 정토여행사(723-7818)가 매주 토요일 경주 일원을 답사하는 코스를 마련해 놓고 있다.

***

불교와 예술 조화미 극치

광주비엔날레 유명사찰 연계코스

단풍소식에 가슴 설레는 남도의 산자락들. 세계인의 미술축제 광주비엔날레가 한창인 전남권의 사찰들이 미술품에 감동된 국내외 관광객의 눈을 다시한번 경탄케 한다.

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추천한 연계관광코스에는 전남북 일대의 사찰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비엔날레도 보고 불심도 단풍처럼 물들인다"는 기회가 될 이 관광코스는 당일에서 3박4일까지도 나눠져 있다. 당일코스에는 송광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박2일코스에는 대흥사, 월출산 도갑사, 백양사, 내장사 등이 추천됐다.

2박3일 코스에는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등과 대흥사까지가 포함됐다. 이들 사찰은 모두 교구본사급이고 산의 단풍도 일품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3박4일 코스에는 운주사가 포함되어 있어 미완의 천불천탑을 보며 불심을 기를 수 있다.

이밖에도 광주 인근의 향림사, 증심사를 단촐하게 들러 보는 것도 좋다. 숙박은 조직위가 운영하는 숙박정보센터(062-224-9456)를 이용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전남권(062-232-78126) 전북권(0652-84-6715)등 안내창구가 나눠져 있기도하다.

신행수첩

발길 닿는곳이 불국정토
광주불교교육원 유적 답사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은 우리 문화의 맥을 찾아 나서는 '제3회 불교문화 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불교문화 그 장엄과 교화 그리고 예배의 삼중주'란 주제로 전남지역 불교문화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와 답사를 통해 드넓은 불교문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지난 22일부터 10월22일까지 매주 수·금 오후7시~9시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는 7회의 강의와 2회의 유적답사로 짜여 있다.

강의 주제는 △9월29일, 사찰건축의 공간구성 원리 △10월4일, 고려불화 그 장엄의 극치 △6일, 고승들의 묘탑과 행적비에 담긴 뜻 △11일, 불교속에 수용된 민속문화 △13일, 운주사 천불천탑의 불가사의 △18일, 조선불화의 예술성 △20일, 결집속에 담긴 상징성 등.

유적답사는 백암산 백양사, 조계산 송광사·선암사다.

(062)228-9098

단풍에 물든 보궁 봉정암
불교대구교육원 기도참배

바야흐로 단풍시즌이라 불리는 계절에 들어섰다. 아직 설악산 아래에서는 단풍을 볼 수 없지만 등산로를 따라 올라갈수록 붉은 단풍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다.

불교대구교육원이 오는 10월8일부터 3박4일간 가을을 등에 업고 봉정암등을 둘러보는 기도참배여행을 떠난다.

소청봉 서북중턱엔 설악산내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고찰 봉정암이 있다. 당우는 법당과 요사뿐이나 후면에 솟은 우람하면서도 운치가득한 봉바위(미륵봉)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또 그 옆 언덕엔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7층석탑이 자장에 얽힌 옛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 절에 오르기 위해선 그 유명한 백담사와 오세암을 거치는데 여기에서도 일박을 하게 된다.

봉정암서 3㎞쯤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날씨가 맑은 날엔 정상에서 금강산과 눈아래 펼쳐지는 무한한 바다의 선경(仙境)도 맛볼 수 있다.

(053)253-7063

살찌는 가을 풍요한 생활
조계사 문화강좌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더없이 좋은 이 때 좋은 문화강좌를 찾아 생활을 살찌우는 것도 단풍을 보는 것 못지 않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

조계사는 2일부터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불자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강좌는 불화그리기, 불교전통 꽃꽂이, 수지침, 서예, 관소리, 토탈메이크업, 사군자, 선체조 등으로 모두 2개월 과정이다.

또 성별,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자기연마를 통한 행복추구의 수행도량이 될 것이다.

(02)720-1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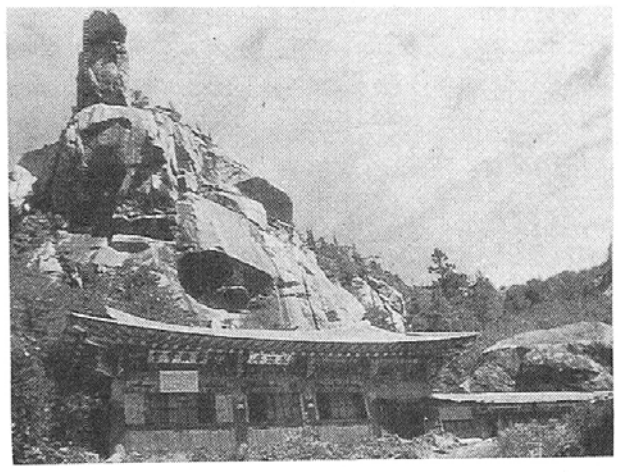
독서철 '민중의 지팡이'에 불서를
서울시경 경승실 도서실 개설

사회 구석구석을 지키는 경찰의 하루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고되다. 게다가 경찰을 바라보는 사회의 눈초리도 곱지만은 않으니 '민중의 지팡이'라는 자부심이 밉기조차 할 때도 있다.

이럴 때 힘이 돼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거기에서 일에 대한 보람을 찾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그 가족들이 신행생활을 하기에 그 여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심지어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한 불서마저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자우스님)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젊은 전·의경과 경찰 가족들의 신행생활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도서실을 운영한다.

하지만 아직도 불서가 많이 부족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부처님의 정법이 수도 치안 경찰과 그 가족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02)739-6500



◇ 백담사의 부속암자로 5대 적멸보궁중 하나인 봉정암엔 선덕여왕 12년에 자장법사가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 봉안했다는 사리탑이 있다.

생활 속의 불교 ㊸

더러운 천에 물감을 들인다면 ……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옷감 만드는 사람이 더러운 천을 물감에 담근다고 하자. 그 물감이 노랗거나 붉거나 간에 그 천은 더럽고 추한 빛깔일 것이다. 만약에 티 한점 없는 천을 물감에 담근다고 하자. 그러면 그 천은 아름답고 눈부신 빛깔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때에 관해 말씀하시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드셨던 것이다. 바뚜빠마 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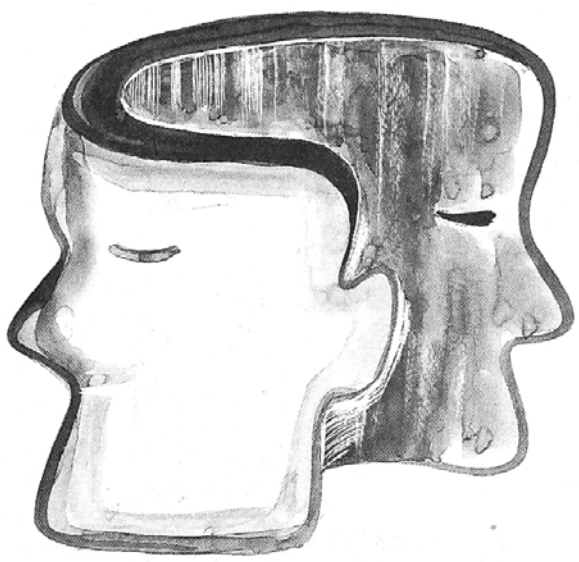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마음의 때라고 하시는가?

탐욕-지나친 욕망이 마음의 때이다. 적의(敵意), 노여움, 원한, 위선, 악감, 질투, 속임수, 거짓말, 오만, 자만심, 허풍, 게으름…… 따위가 마음의 때이다.

이 마음의 때를 거부하고, 놓아버리고, 단념하고, 게워낼 때 사람들은 더러운 천이 아니라 깨끗한 천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자신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곱게 물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인도에는 신성시하는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그 의식을 통해 마음의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 단지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한 데 불과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목욕탕을 찾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때 맞춰 도량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찰에, 법회에 가서 정성을 기울여 마음의 때를 씻고자 노력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다만 습관처럼, 어떤 의무감에서, 혹은 그것이 불자다운 행동인 양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 도량은 한낱 의식 장소에 불과하게 된다.



가람이 마음의 때-미움·탐욕·거짓·심술 따위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가람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자 할 때 비로소 도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람이 마음의 세탁소가 되느냐, 아니면·그저 울긋불긋한 건물이 되고 마느냐 하는 것은 불자들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도량은 복을 비는 곳이 아니다. 시주물 올리고 '아무개가 이렇게 시주했으니 가피를 내려주십시오.'한다면 돌장승에 빌고 칠성각에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삼계도사이신 부처님을 저 돌장승쯤으로 격하시켜놓고 스스로 불자입네 말할 수 있겠는가?

어디 더 좋은 기도처는 없나? 어디 더 좋은 스님은 안 계신가?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가져본 불자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욕심이다. 마음의 때이다. 그러므로 설사 더 좋은 기도처, 더 좋은 스님을 만난다 쳐도 더러운 천을 물감에 담그는 것과 같아 더럽고 추한 빛깔을 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라 하셨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예가 그대로 사찰이라 하셨다. 몸이 세속을 떨쳐서 입산 출가인 게 아니라 마음이 세속을 떨치니 입산 출가라 하셨다. 마음의 때를 씻어 곱디곱게 불법의 물을 들이려 한다면 도량을 찾기 전에 내 마음의 때를 돌아보자. 그래야 비로소 내가 찾는 도량이 부처님 계신 도량이 되는 것이다.

협찬: 한 마 음



대만 불광대장경 '선장' 기증식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심정(心定)스님과 불광산문교기금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 서울 구룡사에서 불광대장경〈선장(禪藏)〉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식에서 송광사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와 현대불교신문사, 동국대, 중앙승가대, 원광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전통불교연구원과 정신문화연구원 등 21개 사찰과 단체가 〈선장〉을 기증받았다.



'불교진흥원 20년사' 출판기념 법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 설립 20주년 기념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20년사' 출판기념법회가 지난달 22일 오후6시 가든호텔 2층 대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출판기념법회에는 홍파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법타스님(조계종 총무부장) 김광삼사장(현대불교신문) 등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제3회 종로경찰서 경승 기원법회

종로경찰서 경승실(경승실장 도종스님)은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대강당에서 유치인 교화와 경찰포교 활성화를 위한 '제3회 종로경찰서 경승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락스님(포교원장) 원혜스님(포교부장) 도종스님 화담스님(경찰청경승) 대련스님(경승부회장) 이택순서장(종로경찰서) 가수 김흥국씨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운불련 · 장애인 법륜회 야외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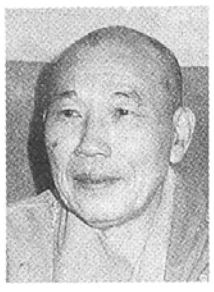
한국운전기사불자 연합회 서울 운수종사불자 법륜회(회장 원상식)는 지난달 22일 장애인 법륜회와 제3회 야외 법회를 경기도 포천군 백운계곡에서 가졌다.

법회에이어 지도법사 선진스님의 지도아래 운전불자회원과 장애인 불자들은 한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불자와 운전불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종단 화합해야 한국 불교 발전"

법륜종 제2대 종정 석일화 스님



"행주좌와 하는 모든 생활자체가 불교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리가 확고할 때 종단도 발전하고 한국불교의 미래도 밝게 열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21일 한국불교법륜종 임시중앙종회에서 제2대 종정으로 추대된 석일화스님(공주 원효사주지)의 에종심은 누구보다 강하다.

법륜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일화스님은 7년여의 총무원장 임기동안 총무원청사마련, 승려 및 신도교육 등 종단 발판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현총무원의 대소사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종정의 소임은 물론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불교의 현실은 특별한 종지종풍없이 종단만 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진단하는 스님은 향후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모든 종단이 화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불사란 것은 본래 부처님의 법을 중생들에게 널리펴기 위한 방편인데 간혹 전시효과만 추구하는 불사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여법한 불사회향을 위해 출가수행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일화스님은 1940년 마곡사에서 금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44년 금오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45년 마곡사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86년 태고종 충남종무원장 역임, 90년 법륜종 초대총무원장, 91년(재) 한국불교법륜종유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김중근 기자〉

교차로

부산 영도구 사암련 신임회장 덕진스님



"스님과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사부대중이 부처님 전에 올바르게 귀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25일 영도구 사암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덕진(대흥사 주지)스님은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히며 무엇보다 사부대중의 합심단결을 강조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첫 사업 포부 밝혀

지역발전의 정초는 우리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버린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스님은 먼저 첫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많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는 일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 혼자만 잘살겠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일은 자신의 아상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아상을 버리는 수행을 하루라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박병근 기자〉

'대승보살의 길' 주제 법문



덕암스님(전 태고종 종정)은 오는 10일(화) 오후4시 동국대 정각원 법회에 참석 '대승보살의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간병인회 기금마련 일일찻집



정진스님(불교간병인회 회장)은 오는 7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간병인회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찻집을 연다.

소쩍새마을 정추위장



보각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난달 18일 소쩍새마을 정상화추진 운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종 재정분과위장 맡아

영담스님(부천 석왕사주지 사진)은 지난 22일 열린 제118회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재정분과위원장에 선임됐다. 한편 이번 종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자승스님(연주암 주지), 권심호 계위원에 도형스님(범어사), 재심호계위원에 혜운스님(월정사)이 각각 보선됐다.



두타산 삼화사 주지 부임



원행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은 지난달 25일부로 동해사 두타산 삼화사 주지로 부임했다. 자광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월정사 총무를 겸하게 된다.

심전사 창건 10돌 기념법회



지웅스님(성남 심전사주지)은 심전사창건 10주년 기념 보살계수계대법회를 오는 10일 오전10시~오후3시 성남시 청소강당에서 봉행한다. 계사는 해인사 율원장 종진스님. 또 수계법회에 이어 기념공연에서는 오은주씨등의 불자가수들이 출연 흥겨운 무대를 마련한다.

日자매교와 '우정의 모임' 행사

이근우교장(청담종고)은 오는 4일 자매교인 일본부사학원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을 초청 법회를 갖는다. 또한 법회에 이어 양교간의 우호를 다지는 '우정의 모임' 행사도 가질 예정.

'여자 그것은…' 출판기념회



정허스님(하늘개인날 원장)은 지난달 22일 부산 동래관광호텔에서 수상집 '여자 그것은 태초의 깨달음이어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무료합동 결혼식 봉행



무상스님(봉은사 주지)은 오는 31일 하응당 보우대사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무료합동결혼식을 봉행.

'선학사전' 출판 기념회



김형균실장(불지사 대표)은 오는 6일 오후 6시 쌍룡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선학사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02)277-2676

'불교와 시사만화' 주제 특강



박재동화백(한겨레신문 시사만화가)은 지난달 28일 중앙승가대학 신문 창간 5주년 기념행사에서 '불교와 시사만화의 관계'에 대해 특별강연했다. 또 박씨는 이날 송산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아홉번째 개인전 열어



조미혜씨(서양화가)가 아홉번째 개인전 '빗장이 열리는 소리전'을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동숭동 스페이스 샘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농아들 마음의 귀 열어주고 싶어"

부산서 14년째 수화지도

강주수 보살



"위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손가락 10개와 얼굴표정으로 전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강주수 보살.

하지만 농아인들에게도 누군가 정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82년부터 부산지역에서 농아인들과 함께 생활해오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의 이기영박사와 서경수교수의 도움으로 불교수화공부를 하던중 성불사 법성스님을 만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는 강보살은 지난 23일 열린 불교수화발표회에서 농아인들을 위해 온몸으로 수화통역을 해냈다.

"농아인들도 누군가가 정확히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를때는 모든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이후로 농아인들도 고통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라고 주보살은 말한다.

불교수화를 통해 농아인들에게 마음의 귀를 열어주고 싶다는 강주수보살은 "농아인을 위한 작업장과 법당, 공동놀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소망"이라며 불자들의 많은 후원을 기다린다고.

〈은〉

"공부하며 신행하는 청년회로 가꿀 터"

조계사 청년회 16대 회장

남도희씨



"부처님과 다시 한번 깊은 인연을 맺게돼 반갑고 기쁩니다. 이 반가운 마음을 임기동안 우리 법우님께 회향하는게 제 몫인 것 같습니다."

13여년동안 조계사 청년회에서 총무차장 연수원장 등의 소임을 맡아오다 지난달 26일 제16대 회장에 선출된 남도희씨.

"할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라고 말하는 남씨는 조계사 청년회가 전국제일의 청년회로 도약하기 위해 그 첫째로 금강경 보급운동을 펴 공부하면서 신행하는 청년회로 꾸려 나갈 생각이다. 교육을 통해 2만 회원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것.

또한 그는 "각 사찰 청년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하고 연수원장을 지내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교육은 물론 포교, 회원 배가 사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

게시판

▲교양대학 개강=부천불교교육원(원장 김정묵)은 16일 3개월 과정의 불교교양대학을 개강한다. 수강과목은 불교개설, 불교문화사, 다도, 컴퓨터. (032)657-5388

▲환경전문 강좌=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에서는 19일부터 12월14일까지 '환경친화적 경제체제의 모색'을 주제로 환경전문강좌를 실시한다. '녹색경제학:환경문제의 성격과 원인' '아나키즘의 경제논의와 환경문제등 8회의 강좌를 진행한다. (02)765-6324

▲특별다보문화 강좌=불교문화센터는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오후5시까지 한국인의 자기인식(이근후 교수) 한국인의 대외인식(이광규 교수) 외국인의 대한국인식(홍승직 교수)등의 강연회를 개최한다. (02)703-0108

이전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오는 4일 종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형빌딩 501호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새 전화는 (02)263-8268~9

고침 지난 46호 2면 기사중 대구불교교육원은 '불교대구교육원'이며 원장은 원명스님, 동진스님은 사무국장으로 바로잡습니다.

공익광고 최우수상 신문부문 이주은씨



◇이주은씨

이주은씨(진애드)가 지난달 28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14회 공익광고 시상식에서 '이보게들…자나?'를 주제로 신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하철에서 할아버지나 장애자들이 타면 못본척 잠을 청하거나 신문을 보는척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씨는 "앞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우리사회의 도덕성이 이번 계기로 인해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봉 환생 축

티벳트 라마 사추 린포체 초청 대법회

귀의삼보하옵고

신심 깊으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가호 지묘력으로 부처님의 혜은이 충만하시옵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은 건곤에 충만하고 보살의 무시무종한 자비는 삼천대천세계에 장익하여 멀리 시공의 구애를 벗어났으며 생사의 유한상을 떠났건만, 미혹한 중생은 미로에서 헤매며 자성을 찾지 못하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 중생을 제도·구제하기 위하여 이땅에 강림하사 무진설법으로 법우를 만진로에 뿌리사 방편의 문호를 열어 고해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이에 불은에 보은하는 뜻으로 소승은 많은 불자님들께 크나큰 인연을 지어드리고자 티베트 라마 사추 린포체를 초청하여 대법회를 봉행할까 하옵니다.

부처님 방편의 진로인 환생을 통해서 무려 24번을 환생하신 12살 난 사추 린포체의 무진설법과 마정수기의 큰 인연을 지어드리는 법의 자리이오니 부디 많은 동참과 권선을 통하여 다생에 지은 모든 업장을 소멸하시고 영겁의 복전을 지으시길 발원합니다.

마정수기라 함은 우리가 수겁을 통해서 지은 모든 업장이 수기를 받은 찰나에 모두 소멸된다는 크나큰 뜻이 있는 것으로서 불자님들께서는 이러한 인연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39년 10월 17일 ~ 18일까지, 오전 11시부터
■ 마정수기 동참금 : 50,000만원(오만원)
■ 연 락 처 :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어비리 산 99-2
(0335) 33-7417 / FAX (0335) 33-7747
■ 교 통 안 내 : • 서울 강남 터미널, 동부 고속버스 이용
• 남부터미널 경남 직행 이용
• 동서울 터미널 경남직행 이용
(용인시외버스 하차 동도사행버스 10시 출발)

※ 행사일부터 마지막날까지 조계사 앞에서 오전 8시에 동도사행 버스 출발

▶신라말의 고찰 금단사 복원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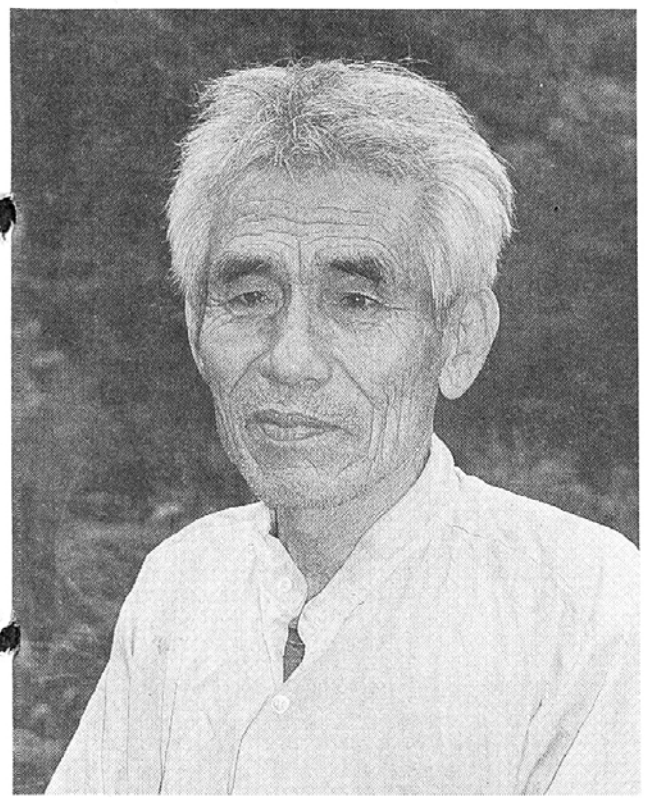
전통사찰 95호
갈마산 동도사

주지 혜 성 두손 모음

"나무 키우며 사는법 배워요"

산문밖의 禪

농사꾼 수필가 전우익 씨



"죄없는 바다 인간의 못된 심보가 죽이고 있어"

고집쟁이 농사꾼의 뜨락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

경북 봉화군 상운면 구천리. 동네 어귀에 선 아름드리 소나무 10여그루가 작은 촌마을의 분위기를 범상치 않게 지키고 있었다. 신작로를 향해 우르르 뛰어 내려 올 것 같은 낙엽송들이 빼곡한 산모퉁이를 돌아서 만나는 몇채의 고가(古家)들. 길가던 한 소녀에게 물으니 "저기가 그 할배의 집"이라고 손짓을 했다.

반들반들 윤기 어리는 대청마루 한켠에서 돗자리를 매고 있는 주름살투성이의 할배가 일손을 놓고 일어서 불청객의 손을 잡으며 "허허 오랜만에 만나는군"하며 웃어 보였다. 그 정넘치는 할배가 바로 〈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겨〉 〈호박이 어디 공짜로 굴러 옵디까〉를 쓴 전우익(70)선생이다.

암울한 시대에 '민정'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겪고 대대로 터잡고 살아 온 구천리로 돌아와 '운동권'과 '억압권'의 밀고 밀리는 관을 훌쩍 떠나 홀로 살고 있는 전우익선생. 그러나 그는 어쩌면 '혼자 잘 사는 재미'를 만끽하는 우리 시대의 자유인임에 틀림없다. 공짜로 굴러오는 호박을 바라지도 않으며 "사람답게 사는 법을 칠순의 나이에 나무 키우는 일상으로 배우고 있다"는 차분한 근황 얘기가 그의 자유로움을 은근히 비춰주고 있었던 까닭이다.

'호박이 어디 공짜…' 책 내

-돗자리 매는 것을 참으로 오랫만에 보게 되는군요. 뭘 그렇게 만드십니까.

▲이거 말이지. 부들이란 것인데 물가에서 캐다가 저쪽 구석에 심었더니 뿌리가 번성해 해마다 몇 아름씩 베다 말리게 됐구만. 인병선여사 알지? 신동엽시인의 안사람말이야. '꽃풀생활박물관'을 열고 거기다 놓겠다고 좀 매 달라기에 시작했지. 꼭 누굴 준다는 것보다는 이짓을 하고 있으면 맘이 편안해져서 참 좋아. 한 대 엮고 수십번 줄을 넘기고 또 한 대 엮고 줄 넘기고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다 실컷 일하고 한 발쯤 늘어난 자리폭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 진다니까.

-그럼 이 일도 선생님께는 마음 다스리는 수행이겠군요.

▲뭐 수행까지야 되겠어. 그저 시끄러운 세상놀음 잊기에 좋다는 것이지. 그런데 이짓을 하며 잊는 것은 세상놀음만이 아니야. 내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까지 말끔히 잊어 버린다구.

-4년전 대흥사 아래 낡은 여인숙에서 뵈었을때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며 술잔을 비우셨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희망 있는 인간의 세상이라면 가스가 터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바다에 기름이 떡칠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 나겠어. 뉴스를 듣는 귀까지 막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구. 백화점이야 인간의 욕심이 무너뜨렸으니 인간이 죽는 응보를 받았지만, 왜 죄없는 바다는 인간의 못된 심보로 인해 죽어가야 하느냐 말이야. 인간에게 절망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이란 생각을 해 봐. 고개 들고 살기가 만만한 일이 아닌거야.

-나무를 많이 심고 정성스럽게 가꾸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묵은 밭을 헐하게 사서 나무를 심고 있어. 밭도 첨에는 산이었지. 나무를 심는 것은 밭을 산으로 되돌려 주는 일이기도 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이지만.

-전지가위를 쓰지 않으시고 저렇게 마당가득 그냥 자라는대로 둔 것이 자연스럽군요.

▲아무리 정원수래도 가위질을 하는 건 안된다고 봐. 가위질로 다듬는 건 인간의 욕망대로 나무를 키우는 것이거든. 그럼 나무는 크는 것이 아니라 가꿔지는 거잖아. 그건 나무를 죽이는 짓이야. 그저 제 뿌리로 양분을 빨아 들이고 제 가지 터지는대로 자라야지, 왜 인간에게 시달리며 커야 하는가.

나무는 나무일 뿐이야. 나무는 내게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 한다구. 제멋대로 크는 나무지만 인간처럼 질서를 깨는 법은 없거든. 인간이야 제멋대로 놔두면 질서도 없고 염치도 없어지지만 나무는 누가 건드리면 오히려 균형을 잃는다는 걸 알아야 해.

-말씀을 들고보니 인간의 욕심은 당장 엄청난 것같아도 사실은 작은 욕심인 것 같군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말로 큰 욕심이 아닌가. 이 사람아. 하하하….

-이렇게 대청마루까지 침범한 산수유 가지도 선생님의 다정한 벗이겠네요.

정원수도 가위질 말아야

▲열매가 잘 맺혔지. 나는 저 열매를 먹지 않아. 도시 사는 친구들이 갖다 먹어. 그들은 저 열매를 먹으며 산수유를 먹었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나는 저 산수유 나무가 봄에 껍질 벗으며 굵어지는 걸 보고 잎돋고 꽃피고 열매 맺혀 익어가는 걸 보는 것으로 일년내내 배가 불러. 나무의 껍질벗기가 인간의 도통하기 같아야 하는데 인간은 해마다 도통하는 길의 반대로 달려가고 있어.

"나무는 가물어야 뿌리 더 깊이 내리지
인간은 악조건을 거부하며
개발만 거듭하므로 점점 쇠약해져
선악 받아들이는 텅빈 마음 필요"

-시골생활이 좋으십니까.

▲시골에 살면서 이런 걸 느껴. 농경사회의 거름이 산업사회에서는 쓰레기란 것 말이야. 거름이 있는 곳에 사는데 즐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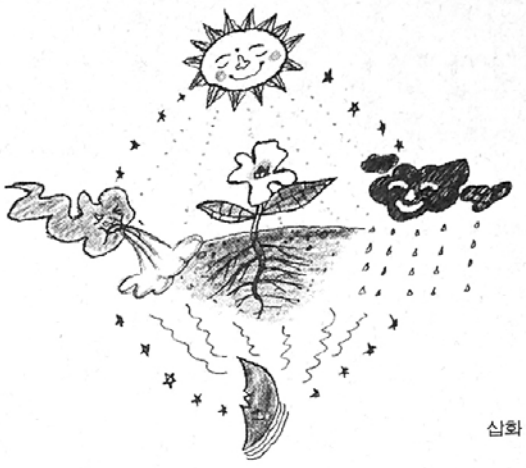
-손수 식사도 지어 드십니까.

▲배고픈데 밥 안지어 먹고 어쩌겠어.

-나무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이제 가봐야겠군요.

▲가야 또 오지. 그런데 이 얘기는 좀 듣고 가게나. 내가 나무 키우며 알게된 건데, 나무도 가물어야 뿌리를 더 깊히 내린다구. 가뭄이란 악조건을 나무는 악조건 그대로 '삶에의 절규'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야. 하지만 인간은 악조건을 악조건으로 받아 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개발'을 하거든. 자꾸 개발하고 대체시키는 가운데 인간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덤덤히 받아들이는 텅빈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다네. 이 늙은이가.

임연태 기자



십화 · 이기선

善緣은 행복의 울타리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㊺

연(緣)

씨앗이 자라 열매 맺는 이치

단풍이 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설악은 단풍이 들었고 중부, 남부는 곧 이어진다고 한다. 아름답다. 산은 붉고 물이 맑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싱그러운 곳인가.

단풍은 한 나무 잎새에만 드는 것이다. 산에 있는 나무는 물론 풀잎에도 단풍이 든다. 한가지 색깔로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갖고 있는 색깔로 물들게 하지만 붉은 색과 노랑색 그리고 맑은 푸른 색을 띄우게 해 산하대지가 장엄하게 된다. 여름에는 녹음방초라하여 완상하는 상춘객이 많았지만 단풍든 산으로 오르는 사람들은 더욱 청아한 마음씨를 갖게 될 것이다.

신비로운 장엄이 자연속에 이루어진다. 한 나무, 많은 잎새가 변색되어 가는 과정은 슬프다고 말할 수 없고 그 숭엄한 장관미를 느끼게 한다. 하나가 아닌 전체, 전체가 얽섞어 가면서 굉장한 화폭을 그려내고 있으니 우람할 뿐이다. 산에 있는 나무들이 한 색깔만 낼 수 있다면 단조롭기 짝이 없고 시각적으로 지루하게 할 것이다. 만산홍엽이라고 할까. 청연만산으로 표현되랴. 천만만 물감이 하나의 화엄을 만들어 내는 법계 총상이다.

불교의 교설에 연(緣)이란 말이 있다.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생긴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생길 수 없다. 원인은 중요한 씨앗이다.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된다는 것은 정칙이다. 씨앗은 열매 맺음의 원초적인 핵이다. 그러나 씨가 있다고 하여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씨앗이 뿌려질 흙밭이 있어야 한다. 흙밭은 적셔주는 물, 적절한 햇볕의 온도, 온갖 주변의 도움이 있어야만 씨앗이 발아하여 줄기 잎새 꽃 열매로 전이하게 된다.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씨앗만 찾아나서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안으로 살펴보면 씨와 마찬가지로 흙밭을 마련하는 것도 빼어놓을 수 없는 사실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흙밭 수분 온도 이것은 연(緣)인 것이다. 밭을 배제하고 생산한다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원인에 대한 찾음이 강하다면 연에 대한 구함도 긴요한 것이다.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도 이 연을 잘 찾아 나서야 한다. 자기 스스로 빛나게 되는 사람도 있다. 자기발견에 충실한 사람은 성장이나 성취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발견에 둔감한 사람은 자기완성의 길이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연을 찾아 나서는 행정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 직업 취미 성량을 재빨리 발견하여야 한다. 선생 친구 직업 사회 이러한 것은 죽은 연으로 맺어질 수 있다. 악연으로 맺어진 환경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 선연의 환경은 인간생활을 복되게 한다.

인간은 연을 찾아 나서는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 바라밀을 챙겨서 생활하고 무량심을 찾아나서 생활의 방도를 삼는다면 그 생활은 빛날 것이다. 그러나 삼악이나 삼악을 연으로 삼아 산다면 지옥고를 면하기 어렵고, 오역죄의 질곡에서 짓눌려 살 것이다. 지옥은 억눌림이다. 이 억눌림은 생명의 선질(善質)을 분쇄시키고 악질의 혈농으로 만든다. 이 혈농으로 몸도, 마음도 썩어 버린다. 우리 주변에는 썩은 농혈을 삶의 생명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지옥고의 생활을 하는 연을 맺은 것이다.

보시를 많이하는 사람은 사귀고, 기도를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참회하는 사람과 벗이 되는 사람은 선연(善緣)을 울타리로 하는 사람이다. 이 선연을 벗으로 하고 울타리로 하는 사람은 끔에라도 선행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발아하게 된다. 원인이 중요한 것은 말할나위 없다. 그 원인을 추심함에 비추어 연을 바르게 고르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한다. 연은 인간을 새롭게 성취시키는 훈습력을 갖고 있다. 선연이란 상황과 같은 것이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나아가면 경과도 양질의 것으로 될 것이다.

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복수적이고 무량수적인 것이다. 중연(衆緣)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중중무진연이 더욱 합당한 것이다. 산에는 단풍이 만색만상으로 물든다. 중연의 소치일 것이다. 우리 인간도 중연을 생활하면서 자기 착함을 풀어내는 모든 남으로부터 배워내면 연(緣)의 깊은 의미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 · 당뇨 ·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정 우 무 역
전화:(02) 929-0211~4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비만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子로서 악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평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혐오감 없는 '공원식 영탑' 바람직

'납골 어떻게…' 조계종 공청회

납골당을 통한 새로운 화장장묘제도를 정착시키고 묘지로 인한 자연환경파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29일 조계종 총무원과 복지재단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 '불교계 납골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 시흥 영각사 현법스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9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사원중심의 영묘전 납골당의 현대화, 공원화를 통해 혐오스럽다는 종래의 편견을 일소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장묘제도 마련,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지방자치단체의 묘지문제에 대한 책임과 개선 △시한부 매장제도의 효율적운영 △정부사회지도층 유명인사, 종교인사들의 의식전환 △최첨단 초현대식 시설의 납골당 건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통한 국민유도 △범국민적 차원의 홍보와 지속적 계도 등을 지적했다.

이어 사례발표에 나선 한마음선원 무애스님은 "한마음선원 탑공원은 불교의 전통적 장례법인 부도탑을 현대화하여 국내최초로 조성, 봉탑제부터 49제까지 탑공원이 위치한 사찰에서 일괄적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편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영탑공원.

'묘지난 해소책' 정부 지원·대국민 홍보 절실

특히 공원식으로 조성돼 있는 탑공원은 일반 공원묘지나 납골당과 달리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없어 인근학교의 소풍지, 휴일에는 지역주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또한 화장제도가 대중화되지 않은 것은 국내 납골당 시설의 낙후성이 주는 혐오스러움과 납골당 주변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납골당에 유골을 안치하는것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매장 선호의 장묘제도가 개선되지않고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서울은 2년, 수도권은 5년, 전국적으로는 10년내에 집단묘지의 공급이 한계를 맞게 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오흥석(동대교수), 유정석(사회복지재단 자문위원)등과 관련기관의 대표들은 종교계가 심각한 묘지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올바른 화장장례 문화정착을 위해 시흥 영각사 영묘전과 한마음선원 탑공원등의 성공적 운영을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납골당의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규정의 보완등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지원책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은자 기자

'관' 하는 법을 알려 주십시오

문 불교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항시 모든 것은 돌이 아니며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 '관'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관하는 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이리시 모현동〉

답 이 세상을 천차만별로 만들어 놓고 천차만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겠지요?

또 나를 돌아다 볼 때 온 것은 누구이고 간 것은 누구냐, 누가 울고 누가 웃느냐, 그렇게 하는 근본은 누구냐를 알아야 하겠지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를 형성시켰고 수억겁의 진화를 이끌었고 지금의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본래 면목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있다면 대답 좀 해보아라 하는 것이 '관'입니다.

말하자면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지요. 걷는 것은 누구고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은, 보는 것은 누구인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마치 코드를 빼놓은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맡기고 놓는다는 것은 부처님 자리와 코드를 연결해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자리에 연결되었다면 죽든지 살든지 뭐가 겁날게 있습니까?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 그것이 그때그때의 놓고 맡기는 작업입니다. 내가 대답을 하는 중에 '주인공 당신이 만든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일러주는 것은 바로 그렇게해서 코드를 이으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거는 기독교의 절대자 신앙과 같은 게 아니냐'고 한다는데 그것은 둘이 아닌 도리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주인공'하니까 무슨 대상으로 생각되는 모양인데 주인공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일체가 둘이 아닌데 주인공 하면 어떻고 참나 하면 어떻습니까? 밖으로 돌아서 찾으려 하지 말고 안으로 찾으라는 뜻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믿고 놓는 것, 그것이 올바른 '관'의 시작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켜보는 것입니다. 뭔가 볼 대상이 있어서 지켜보는게 아니라 '없는 중심'을 그냥 지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거 아무것도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누구나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 '나'라는 조건을 한번 돌아다보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고 돌아다 봤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놓고 맡길줄 알아야 하겠지요. 믿고 맡겼으면 바로 거기서 내가 나왔기에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가 끌고 다니고 나는 나가 있기에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용도대로 들이고 낼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이론이 아니고 맡입니다.

따라서 관법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믿음이 강해야 합니다. 옛날 선사들이 목숨 떼어놓고 뚫어라 하는 것은 믿음이 그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공부가 제대로 익어가질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곧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 하듯이 부처님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냥 나는 불자니까 부처님 말씀 믿는다 하는 정도이어서는 안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급박한 경우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켜볼 때 자꾸 망상이 끼어들게 됩니다.

둘째로 믿었으면 그 믿는 자리에 몰락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맡기라고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면서 맡긴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비는 것이지 마음공부하는 관법이 아닙니다.

맡기고 놓는다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 무쇠·잡쇠를 쓸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자리와 주인공 자리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않아' 하는데 둘 아니게 믿고 들어가는 게 그리 쉬운일은 아니지요. 평등한 마음, 텅 빈 마음으로 내면을 주시하는 것, 그러면서 관하는 나와 관해지는 주인공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잘 아시는 얘기이겠지만 부처만이 부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참나만이 참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바꿔놓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공이요 이름인 것을요.

'주인공만이 주인공을 증명할 수 있다' '나를 있게 한 것도 주인공이 한 일, 지금 내게 닥친 이 일도 주인공이 한 일, 그러니 주인공만이 답을 알 것이고 되게 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이 할 일이다'라면서 일심으로 나아가서는 무심으로 지켜볼 때 진정한 '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또 몰락 놓지 않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관'이 될때 그게 바로 참선인 것이지요. 일체를 놓고 관하라 하는 것은 일체가 같이 돌아가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와 같이 돌면 행·주·좌·와가 그대로 참선 아니고 뭡니까? 자리틀고 앉아야만 참선은 아니지요.

잘 안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속에 부처님께로 이어지는 주인공이란 이름의 우체통이 있다. 그 우체통에 닥치는대로 넣으면 배달이 되고 답장도 온다.'

답장을 지켜보는게 '관'입니다.

"한국불교 東亞서 가장 희망적"

美학술회의 정병조교수 "비구니스님·재가 수행 기대"

'동아시아에서의 한국불교의 위치'를 주제로 한 불교국제학술회의가 UCLA大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지난달 15~19일 미 UCLA 교수회관에서 20여명의 불교학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정병조교수

모두 16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회의에서 한국측은 정병조(동국대)교수와 심재룡(서울대)·길희성(서강대)교수가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동아시아불교에서의 지눌의 위치' '일본의 정토진종 창시자 친란의 사상에 미친 경흥의 정토사상'을 각각 발표했다.

특히 정병조교수는 "한국불교의 중국으로부터의 북방전래설과 김해·가야지역으로의 남방전래설을 비교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정교수는 또한 한국불교의 보편성으로 지적돼 온 '회통불교'의 개념과 관련, "회통불교는 비빔밥식의 절충주의가 아니라 자기종파의 종지를 주장하면서도 타종파의 여러 교리적 특징을 방편으로 이해·포섭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한국불교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희망적"이라면서, 그 근거로 △재가불자들의 건강한 지성불교의 전통과 △비구니스님들의 철저한 수행기풍을 들었다.

'자기집착 해방이 공동목표'

윤호균교수 禪·정신분석 비교논문 눈길

선 수행과 정신분석을 통한 정신치료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가톨릭대 심리학과 윤호균교수가 최근 발간된 논총 〈동양사상과 심리학〉(성원사 刊)에 게재한 논문 '정신치료와 수도: 정신분석과 禪을 중심으로'는 동·서양에서 인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이고 있는 두 방편을 비교했다.

윤교수는 먼저 "정신치료나 선 수행은 다같이 자신의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정신분석은 주요한 무의식적 감정이나 욕구로부터의 해방 등 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선 수행은 훨씬 철저한 자기정화와 극기를 요구한다는 차별성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한 "선에서의 깨달음과 정신분석에서의 통찰이 둘다 자기 내면에 대한 의식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한일문화이해' 학술회의

불교관련논문 4편 발표

한국사상사학회(회장 김삼룡 원광대교수)는 10월 2일, 3일 동국대동국관에서 '한일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한 제문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일본 와세대학의 小山田丸교수의 '한일문화의 상호이해를 위하여: 역사와 장래'등 모두 7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불교관련 논문은 △미륵신앙에 나타난 한·일의 비교(일본 大谷대 雲井昭善교수) △원효저술의 일본유통과 그 영향(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 △불교에 있어서의 사원의 사상(愛知學院대 前田惠學교수) △한국불교에 대한 일본불교의 침투(서울대 최병헌교수) 등 4편.

'한국불교학' 20집 준비

김인덕교수 회갑 특집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 동국대교수)는 10월 15일경 同학회 부회장인 동국대 김인덕교수 화갑기념 특집호로 〈한국불교학〉 20집을 상재(上梓)한다.

'삼론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논집에는 김영태교수의 '고구려 승랑의 중국불교학상 위치', 김인덕교수의 '삼론학의 파사현정론' 등 기발표 논문 4편과 목정배교수의 '계율에 나타난 불교의 생명관', 오형근교수의 '기신론에서의 심의식사상' 등 21편의 논문이 수록된다.

경주개발, 역사·자연경관 고려를

한상일교수 박사 논문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도심 통과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주국립공원에 대한 관광자의 정체성(正體性: 대상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하는데 적용되는 기본적 환경) 인지도와 바람직한 개발방안 등을 살펴본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한양대관광학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확정된 경주전문대 한상일교수의 '관광자의 관광지 정체성 인지에 관한 연구: 경주국립공원을 중심으로'는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관광지 환경이 어떠해야 할지를 제시했다.

논문에서 한교수는 "경주의 고유한 정체성인 역사성은 불교문화를 토대로 형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주국립공원의 정체성 변화 요인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경마장 건설 등을 들고 대규모 개발에 앞선 문화재와 경관보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주의 개발이 △역사·자연경관의 보존 △역사경관과 생활경관의 조화 △우수한 문화관광지 발굴 △축제행사 및 향토 예능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일교수

◇기사념쳐 이번주 '한국사찰의 주련' 쉽니다.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7치 : 23.1cm) (5치 : 17.5cm) (1자 : 33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일만불 조성

장인의 혼과 얼을 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 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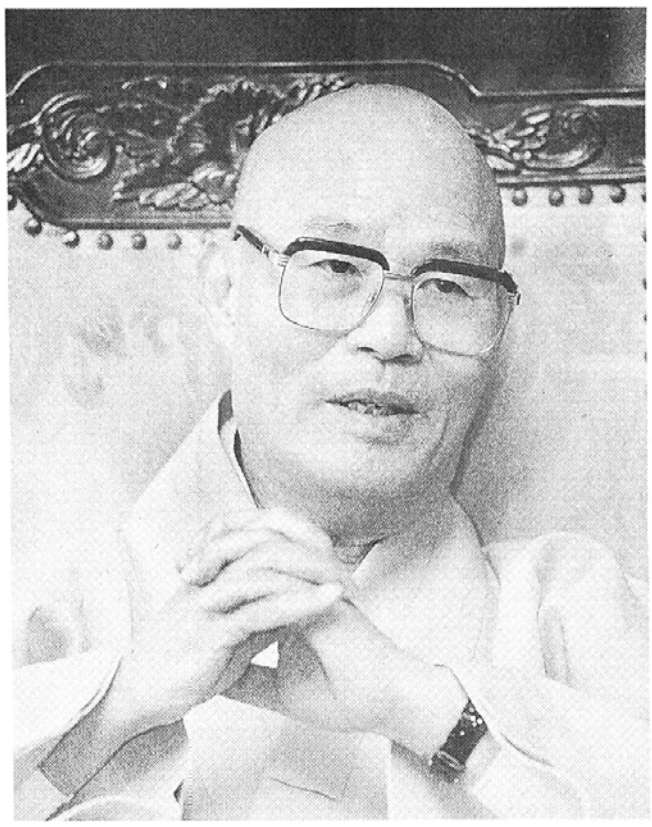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 표 권 영 천 합 장

"대중교화 방편으로 가람중창"

30년 불사회향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



수요 인터뷰

황악산 직지사(直指寺).

이땅에 불광(佛光)이 드리워지던 신라 때의 아도(阿道)화상이 첫 손가락으로 길상지(吉祥地)를 짚은 이래 1천6백여 성상을 한국불교 역사와 함께 해온 고찰이 21세기를 앞두고 웅장하게 장엄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걸승들이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해탈가를 불러 온 직지사가 30년 중창불사를 마감함으로 불교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디딤돌을 마련케 됐다.

30년간 직지사 중창불사를 '화두'삼아 전력해 온 주지 녹원(綠園)스님을 동국대 이사장실에서 만났다.

제2 創寺원력 실현

—결코 짧지 않은 기간동안 제2의 창사(創寺)원력을 실현시켜 오셨는데 대작불사의 회향을 앞두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산이 세번이나 변하는 시간을 오직 중창불사에 매진해 왔습니다. 퇴락한 당우를 고쳐짓고 새 집을 지어 사격(寺格)을 장엄해 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 당장 눈앞에서 강산이 서너번을 바꿔놓는 듯한 감회에 젖어듭니다.

—중창불사의 의의를 짚어 본다면 사격의 장엄과 국내외 포교의 터를 다졌다는데서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직지사는 개산조 아도화상 이후 고려때의 능여(能如)조사의 중창이래 수없는 중수중건이 이어져 왔으나 임진왜란 이후 쇠락의 길로 기울고 말았습니다. 일제를 거치고 나라의 여러 여건이 건실해 지면서 직지사도 옛 위용을 되찾아야 한다는 소신으로 중창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제방 사부대중의 뜻이 모아져 이제 그 장엄도량을 보게 되었으니 황악산의 새 회상에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열어갈 빛이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원과 국제불교회관(만덕전)은 이 땅의 청정한 불심을 이끌고, 나아가 세계인의 불자화를 이뤄내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람중창도 매우 중요한 대중교화의 한 방편임을 알게 됐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포교의 사명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직지사의 전법역량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지사는 본래 전법·호법·호국의 도량입니다. 면면한 역사 속에 걸출한 용상(龍象)들이 배출돼 이 나라에 부처님 법을 전한 실례를 일일이 다 들수야 없지만 그러한 역사적 저력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1세기 한국불교 포교의 핵심도량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청소년 수련원의 역할과 최근 발족한 환경보호회의 구준한 활동, 그리고 성보박물관을 통한 문화재 사랑운동의 전개등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전법불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 나라, 한 지역에서 종교활동이 이뤄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구촌이 한 마당의 열린 세계이니 온 세계인이 함께 깨달음을 향한 구도행진을 해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덕전에서 세계의 석학들이 오묘한 부처님 법을 밝히는 학열(學熱)을 진지하게 태우고 세계의 새싹들이 모여 고사리 손으로 합장하며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지난 30년의 고통들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30년 불사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건 어려우니까 그것이 일로써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집한칸을 고쳐 짓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 긴시간을 두고 큰 가람을 새단장하는 일에야 어려움이란 표현이 당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땅문제였습니다. 절의 담장만 넘으면 논밭이 된 남의 땅이었으니까요. 한때 사방 40리가 절땅이었던 과거가 무색했지요. 경내에 들어선 논밭을 다시 사들이는 일은 실로 어려움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더구나 절이나 신도나 모두 살아가기 어려운 시절에 시작한 일이어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의 얘기를 하나 들려주십시요.

▲국민학생들이 절로 수학여행을 오면 그 고사리손에 쌀을 한 보시기씩 가져왔었죠. 그 쌀을 받아 학생들 밥해주고 잠도 재워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남은 것으로 인부들 밥을 지어주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꽤나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동참 사부대중에 감사

—불사과정에 많은 문화재도 발굴한 것으로 압니다만.

▲중창불사를 진행하며 6~7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발굴되어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불사의 중창과 아울러 각 말사의 문화재를 점검하고 사지(寺誌)를 정비한 것도 매우 뜻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성보박물관도 지었으니 직지사는 문화재 사랑의 실천도량으로도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어찌보면 이 중창불사는 직지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불교전체의 일이고 나라의 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간 이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동참불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텐데요.

▲직지사 대중을 중심으로 펼쳐 온 이 불사에는 전국의 모든 불자가 참여했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참여도 있고 정신적 참여도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간절한 발원과 애틋한 합심이 이뤄낸 부처님 도량이니 모두가 이 불사를 인연하여 성불의 씨앗을 뿌렸다고 봅니다. 역사는 우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어서 새시대를 여는 사부대중의 원력에 감응하는 부처님 가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직지사의 회향불사에 많은 불자님들이 두루 동참해 소중한 인연을 맺길 빕니다.

임연태 기자

"되찾은 옛 위용…불교의 내일 열 새 회상 기약"

문화재 사랑운동등 전개…환경보호회도 발족

나의 수행일기

동문성 〈속초 시장〉



'心卽佛' 되뇌이며 신심 북돋아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부도덕사회 정화" 확신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내가 일곱살되던 해인 1943년 쯤으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잃어버린 땅' '두고온 산하'인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났다. 내 고향 용포벌에는 북쪽으로 동해바다를 향해 흘러 내려간 백말(白馬)모양을 닮은 모래산 백마산이란 산이 있다. 이 산의 머리부분에 동해바다를 향한 아담한 절이 있었다. 그때 나는 이 절에 부모님을 따라간 일이 있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가진 첫 일이다.

내가 태어난 용포리동네에서 백마산을 바라보면 그 모래산은 영락없이 백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해방전 국민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기회가 주어지면 친구들과 드넓은 용포벌을 뛰놀면서 백마사에 찾아가는 일은 자주 있었고, 절을 찾으면 법당과 산신각에 들어가 절을 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같은 참배행위는 막연한 신앙생활이었다.

8·15해방이 되자 하루 아침에 일본글을 쫓아내고 한글을 배움으로서 어리둥절하던 나날이 계속되던 일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북한이 6·25전쟁을 한창 준비하던 1949년 여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조선역사 시간에 안모 역사 선생님이 느닷없이 백마사를 몰아부치면서 절간은 미신의 집단이며 놀고 먹는 사람들의 집합소라고 쏘아 붙였다.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할 줄 몰랐던 때인데 1·4후퇴와 함께 월남한 이후에야 그 선생님의 말이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이요, 종교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혼자서 쓴 웃음을 지은 때도 있었다.

철이 들어서 알게된 일이지만 우리 어머님은, 우리집안은 선대로부터 절에 다니는 집안이었다고 우리형제들에게 말씀하셨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으셨다.

6·25의 참담한 전쟁속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땅과 전 재산을 버리고 월남한 우리집은 속초에 정착하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머님께서는 정성을 들여 공양미를 마련하여 초파일과 백중에는 속초 인근의 보광사(普光寺)를 찾아 기도를 드렸었다. 이제는 타계하여 저 세상에 가셨지만 우리 어머님은 불심이 대단히 깊었던 분이셨다.

내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뒤에는 아내가 어머님의 불심을 이어받아 지금은 보광사뿐만 아니라 낙산사, 신흥사등 매년 몇곳의 사찰을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하고 있다. 어머님과 아내의 신심에 비하면 나는 가끔 불교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막연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즉불'이라고 독백을 토하면서 스스로 불자임을 확인하고저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불자의 최선행조건은 부처님 앞에서 자기를 수행하는 기도라고 알고 있는데 부처님을 접하지도 않고 '심즉불'만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절에 갈 수 없을 때에는 '내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는 기본 생각만은 늘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소년시절일 때만 해도 부처님을 뵈려면 적어도 하루 몇 십리씩은 산행을 해야 절이 있었다. 부처님은 심산에 외로이 앉아서 기껏해야 하루 몇명의 불자를 대하기 일쑤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깨어난 인간들이 발달시킨 물질문명의 첨단사회가 도래한 오늘날에는 부처님도 산사(山寺)에서 내려와 사람들이 떼지어 살고있는 시중(市中)에 자리를 잡고있다. 포교당·양로원·유치원·종합병원 등을 설치하면서 현대사회 가운데 우뚝서서 현대과학이 창출해 낸 물질문명의 역반응 현상들에 대해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있다. 고준한 고독경에 안주하시던 옛날의 부처님이 아니고 혼탁·부도덕·비정상적인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대사회를 바르게 제도하시기 위해 시민사회속에 내려오신 것이 오늘날 부처님의 참모습인 것이다.

나는 지난 6·27지방선거를 치루면서 부처님의 공덕을 특히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의 많은 불자들이 나의 당선을 위해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른 신앙을 가진 친지나 후배들이 나의 당선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은 종교가 추구하는 공동선(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사람에 따라서 심한 종교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혹 볼 수 있는데 나는 이처럼 부질없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들 불자들은 그런 것들을 초극하여 바른 자아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불교가 세계화를 향해 정진하는 참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수료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하실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질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로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 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해당지역언어·불교 전반

■ 시간: 매주 火·水·金 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통신도 가능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타계하셨거나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가능※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한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6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업 반: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명

■ 교육기간 : 3개월(각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워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5년 10월 1일 ~ 11월 13일

■ 개강일시 : 1995년 11월 13일 오후 5시 정각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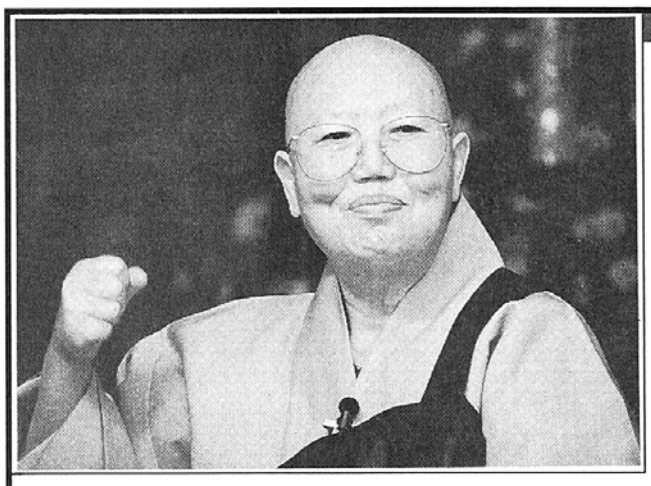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한빌딩 2층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二斗
院長 鄭大隱



중앙승가대 발전기원

대행스님 부산대법회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

▶일시 : 불기 2539년 10월 8일(일) 오후 2시

▶장소 : KBS 부산홀(남천동)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부산지원(403-7077)

▶후원 : 부산불교연합회, 부산불교신도회, 부산불교방송, 불교TV부산지사, KBS부산방송총국, 부산일보, 국제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모시는 말씀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미묘한 것이어서
온갖 것을 만들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는
어려운 일들 또한
마음의 미혹함 때문이니
더욱 정진하여 자성을 밝힐 일입니다.

치열하게 성찰의 시간을 가질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는
옛 선사의 말씀처럼
우리 불자 모두는
자성을 밝혀

'부처와 중생'이
'예토와 정토'가
'나와 이웃'이
둘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 생명이 함께하는
'참 삶의 길'
'참 자유의 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주인된 삶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행스님과 함께 하는
'만 생명의 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30〉

孤山圓法師 示學徒
(고산원법사 시학도) ④

居乎師位 諒無愧德 趣乎佛果 決定不疑
거호사위 량무참덕 취호불과 결정불의
汝無矜伐小小見知 樹立大大我慢
여무긍벌소소견지 수립대대아만
輕侮先覺 煞惑後生
경모선각 형혹후생
雖云聽尋 未補過咎 言或有中 汝宜思之
수운청심 미보과구 언혹유중 여조사지

스승의 자리에 머물러서 덕이 옛사람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 할 줄 알면 불과로 나아감에 결단코 의심할 게 없으리라.

그대는 조금 아는 소소지견을 베었다 자랑말고

아만을 잔뜩 키워서 선각을 업신여기지 말며 후학들을 현혹케 하지 말지어다.

비록 듣고 찾는 게 허물과 때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나

말 속에 혹은 맞는 게 있을 터이니 그대들은 그 점을 생각하라.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①

敬諭諸弟子等

고 속세를 여의어서 영구히 부모의 사랑을 베고

뜻을 돌이켜 성품을 바꾸고 속세무리에 동화되지 않으며

사람이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베이지 못하는 바를 베이며

고통을 참고 욕됨을 감수하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어렵다 하는 것이니 가로되 도인이다.

道人者 導人也 行必可履 言必可法
도인자 도인야 행필가리 언필가법
被服出家 動爲法則
피복출가 동위법칙
不貪不諍 不曉不惡
불탐부쟁 불참북특
學門高遠 志在玄默 是爲名稱
학문고원 지재현묵 시위명칭

도인이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라서 행함에 반드시 본받을만 하며 말을 반드시 법삼을만 하다.

법복을 입고 집을 나서면 움직임마다 법이 되는지라

탐하지도 다투지도 않으며 헐뜯지도 간특하지도 않고

학문은 높고 깊고 뜻은 깊고 고요하니(마음 깊숙히 뜻을 두니) 도인이라 이름한다.

參位三尊 出賢入聖 滌除精魂

"탐하지도 다투지도 헐뜯지도 않으며 고통을 참고 욕됨을 감수해야 도의 경지"

경사제제자등
夫出家爲道至重至難 不可自輕 不可自易
부출가위도지중지난 불가자경 불가자이
所謂重者 荷道佩德 榮仁負義
소위중자 하도패덕 영인부의
奉持淨戒 死而有已
봉지정계 사이유이

여러 제자에게 공경히 사례하노니(사례의 뜻으로 계를 남기노니)

무릇 출가하여 도를 닦는다는 게 지중지난하매 스스로 가볍다거나 쉽다고 하지말라

이른바 중하다 하는 것은 도를 등에 지고 덕을 허리에 차고 인을 어깨에 메고 의를 머리에 이어

정한 계를 받들어 지녀서 죽어야 그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所謂難者 絶世離俗 永割親愛
소위난자 절세리속 영할친애
廻情易性 不同於衆
회정역성 부동어중
行人所不能行 割人所不能割
행인소불능행 할인소불능할
忍苦受辱 捐棄軀命 謂之難者 名曰道人
인고수욕 연기구명 위지난자 명왈도인

참위삼존 출현입성 척제정혼
故 得君主 不望其報 父母不望其力
고 득군주 불망기보 부모불망기력
普天之人 莫不歸服
보천지인 막불귀섭
捐妻減養 供奉衣食
연처감양 공봉의식
屈身俯仰 不辭勞恨者 以其志行 清潔
굴신부앙 불사로한자 이기지행 청결
痛於神明 淡泊鑑白 可寄可貴故
통어신명 담파허백 가기가귀고

(또한) 삼보의 자리에 참예하고 들고 남에 현성이라 정기와 혼백(심식)을 씻어 맑힌다.

고로 군주가 그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부모가 그 힘을 바라지 않아도 (군주나 부모가 바라는 바가 아니며)

온 세상 사람이 끌어안겨 포섭되지 못함이 없나니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거나 그 몫을 덜어 옷과 음식으로 공양하고

몸을 굽혀 우러러 받들되 힘들고 한스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그 뜻과 덕행이 맑고 깨끗하여 신명에 통하고 욕심이 없이 담백해서 가히 기특하고 고귀한 까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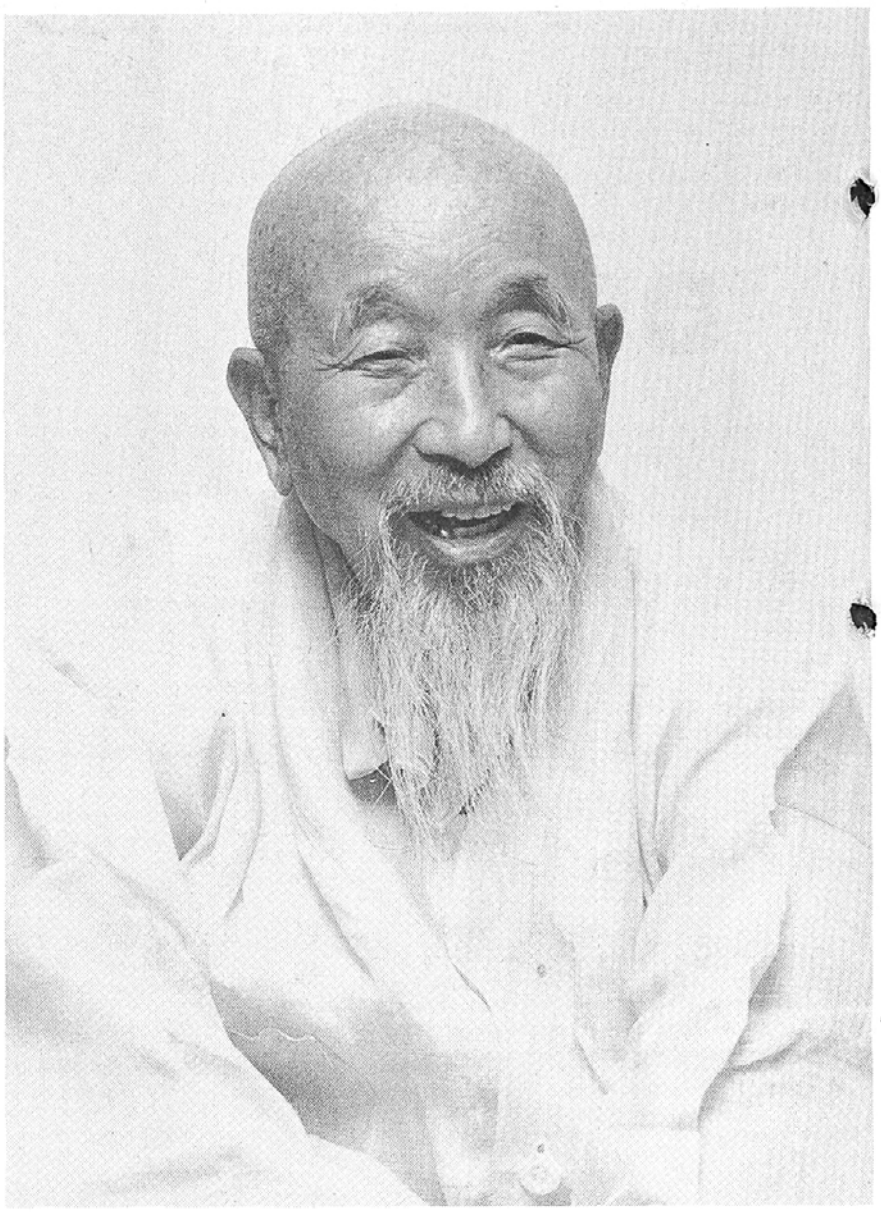
龍眼

이른바 어렵다는 것은 세상인연을 끊

지상법석

"잇단 대형사고는

비룡스님 〈월정사 조실〉



악력
- 1901년 生
- 1927년 한암스님 은사로 득도
-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요즈음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삼강오륜, 윤리도덕 등이 모두 무너져 버린 것같습니다.

윤리·도덕이 바로서야 화합이 잘되고 남북평화통일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윤리드덕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화합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같아 늘 안타까울 뿐입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형사고가 바로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충심으로 화합하지 못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화합이 잘 안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대자대비한 불법으로 화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합이 잘되면 부처님 법도 흥하고 나라도 흥하게 돼 평화로운 세상이 자연히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중요하고 특히 오늘날은 부처님의 진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자들은 이런 진리를 바로알고 누구보다 먼저 화합의 길에 앞장 설줄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정치를 하더라도 이 진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헛된 망상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직업과 역할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배금주의 만연은 삶의 중심이 없기때문 화합의 길 앞장 설 때 자신도 사회도 건강"

즉 모든 생활에 있어서 진실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사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세태를 보면 이기주의, 개인주의, 기회주의, 배금주의가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단합은 고사하고 나라가 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것을 다 버리고 바르게 실천수행해야 화합이 잘되고 나라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바르게 생활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교육의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은 이런 법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이나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열린교육, 참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참교육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이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며 국민모두가 바로 애국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예의가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서는 것입니다. 특히 윤리·도덕교육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실시해야 합니다.

출가자의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수행정진하는데 욕심이 잔재하고 있다면 성불은 고사하고 올바른 수행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항상 탐·진·치의 삼독심을 버리고 정진할 때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이고 성불할 수 있다고 옛조사들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수행의 길에 드는 수행자는 이런 번뇌망상들을 소멸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가부좌를 틀고 화두에 들어가면 온갖 삿된 꿈이 꾸어지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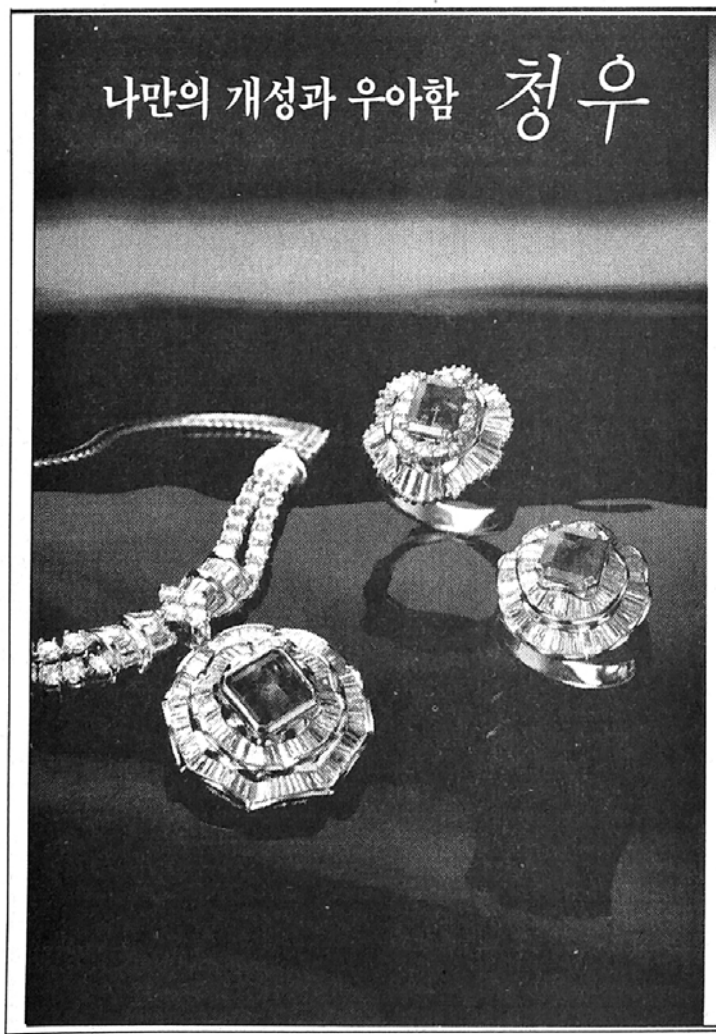
수행자 가운데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은 삿된 꿈이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고 번뇌가 없는 사람은 삿된 꿈이 일어나지 않고 속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사형 가운데 보문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상원사에서 용맹정진했는데 일주일만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용맹정진하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번뇌를 끊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문스님이 처음에 화두를 들고 하나하나 풀려고 수행에 들었을 때 갑자기 붉은 황소가 나타나 단단한 뿔로 받으려고 달려들었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속에 번뇌가 가득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산란심과 번뇌가 마음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삿된 꿈을 꾸게되고 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번뇌덩어리인 붉은 황소를 물리치려고 입술을 깨물며 수행을 하다보면 마침내 붉은 황소는 서서히 없어지고 다시 검은 황소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검은 황소를 붙잡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흔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델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

월간 대중불교 10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제4차 세계유엔 여성회의 / 김징자
시사 5·18불기소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이용림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프랑스 제품은 먹지도 입지도 맙시다 / 성낙진
문화유산 보호 캠페인 1 격이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구산선문 1 실상선문 실상사 / 김희균·김성철
엄과 문화 전남 순천 낙안읍성 / 김효형·김성철
법당 이야기 9 토함산 석굴암 / 김희준
불교와 민속 9 家神신앙에 유입된 불교 / 김종대
페사지를 찾아서 양주 회암사지 / 김상영·최태선
일본을 개척한 위대한 한국인들 1 일본 최초의 불교신도 '소아도목' / 홍윤기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극작가 신봉승 씨 / 김희균
불교교리산책 / 업 9 인업과 만업 / 정승석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 9 마음관리 / 용타

특별기고
못 다한 교리강좌
부처님 사리,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이평래)

특 집
내가 읽은 경전
적막한 객실의 간경삼매—〈반야심경〉 / 연관
간결한 핵심—〈법구경〉 / 목정배
여래의 지극한 본성—〈원각경〉 / 송찬우
팔만의 진수이자 개론—〈능엄경〉 / 혜정
너희도 무대의 주인공이 되리라—〈법화경〉 / 황남채

수행으로 가는 길 7 알고 믿는 믿음, 모르고 믿는 믿음 / 이제열
에세이 보살불교 10 / 법장보살 1 아미타 정토를 이룬 법장보살 / 일지
신행상담 이교도인 장남 대신 차남이 제사를 모셔도 되는지요? / 상덕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보살화현, 대구의 김내과병원 원장 / 효림
포교당 일기 7 장터 사람들 / 원묵
선화일편 마음이 가는 길 / 설산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 박승원·장영숙·박몽은

해외불교 읽기
환생의 나라, 티벳 4 간체 꿈봄塔 / 김선정
봉주우르, 길상 독일 나들이 / 지묵
한국밖의 한국불교 서부하늘에 드날리는 한국선풍 / 정용철

뻗어나가는 불교
직장불교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 / 오경숙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지상법석

탐욕 절제하지 못한 탓”

“공부하지 않는다면 끓는 쇳물 먹을지언정 절대로 한톨의 쌀도 먹지 말라”

계율지키지 않으면 용맹정진도 아무 소용 없어

깨달음 얻었다해도 수행멈추면 번뇌다시 꿈틀

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소는 잡히지는 않고 점점 멀리 멀리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쉬지않고 계속해서 정진하다보면 번뇌는 하나하나 소멸되고 결국에는 검은 황소의 고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삐를 잡았다고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번뇌란 이 놈은 기회만 있으면 일어나려고 항상 꿈틀거리기 때문입니다. 고삐를 꽉잡고 검은 황소를 못움직이게 해야 비로소 검은소가 번뇌를 벗어버리고 하얀소가 되는 것입니다.

붉은 황소가 검은소가 되고 하얀소가 되어도 번뇌는 없어지지 않고 또다시 호랑이란 새로운 번뇌가 다시 나타나 좇아옵니다.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렸다고 생각한 이러한 자만 속에 빠져버리면 소(번뇌)는 다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비록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선정삼매에 들어 정진해야 합니다. 선정삼매에 들면 모든 분별심이 끊어지고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드는 것이지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용맹정진한다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선 뿐만 아니라 어떤 수행도 계율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닦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모든 분별심이 끊어지고 확철대오하는 것입니다.

몸뚱이는 호랑이를 만나자마자 또다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수행자는 이와같은 상황에서 더욱 정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번뇌소멸을 위해 용맹정진 하다보면 결국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곳에 이르러 수십길되는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이때 바로 모든 업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일하지 않고 정진하다보면 바다에서 그물로 큰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허공 속에 티끌없는 밝은 별이 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오르는 순간 성난 검은소는 욕심없고 순한 하얀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서도 끊임없이 수행하다보면 나중에는 소란 자체가 없어지고 별과 달이 비치게 되는데 그 때가 바로 일체망상이 다 소멸되고 오직 마음공부에만 일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거기서 바로 마음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리를 증득했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모두 수행이 다 끝이난 것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제일 큰 도둑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50여년동안 한국불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코 잘했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지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려의 교육과 자질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즈음 승가의 현실을 보면 머리만 깎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줄 알고 공부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이 자신의 법랍에 상관없이 모두 어른이고 큰스님 노릇을 하려 합니다. 법랍도 속이고 승적도 속이고 큰 깨달음을 얻은 스님처럼 설법을 하는 등 마치 수십년간 공부한 스님네들처럼 행동을 하려 합니다.

수행자라하면 항상 탐욕을 버리고 겸손하고 하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요즈음 스님네들을 보면 합장할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위계질서가 없습니다.

사회만 윤리도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승가에도 예의도덕이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래 승가란 것이 속가의 나이로 질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으로 하기 때문에 출가순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불교가 더욱 발전하려면 항상 하심하는 생활습관과 공부하는 승가의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일불제자라고 말 할 수 있고 절밥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스님네들은 공부는 하려고 하지않고 먹는데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잘먹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부는 잘되지 않는 법입니다.

‘주린가운데서 도가 발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서 무슨 도를 찾고 용맹정진 할 수 있겠습니까. 잘먹고 편안한 가운데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다 헛소리고 망상입니다.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온갖 망상은 불처럼 일어나고 편안해지려는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은사스님인 한암큰스님께서는 무섭게 공부하셨지요. 요즈음은 옛날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섭게 공부를 시키는 스님도 없고, 공부를 할려고 하는 스님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승가의 수행풍토가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한암스님께서는 입버릇처럼 ‘공부해라. 중이 공부 안하면 큰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암큰스님은 ‘수행자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펄펄 끓는 쇳물을 먹을지언정 절대로 한톨의 쌀도 먹지 말라’고 제자나 스님네들만 보면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신도들의 시주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수 많은 신도들의 뜻(소원)이 가득 담긴 공양이기에 공부하지 않고 어찌 함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출가수행자는 항상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야 부처님, 부모님, 신도들의 은혜를 갚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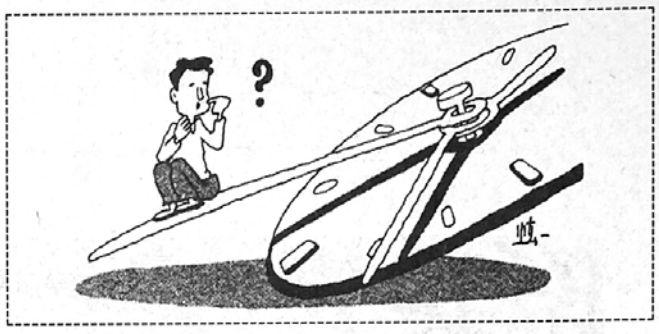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스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라, 고려, 이조 때 스님들이 아직 열반에 들지 않고 지금도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님들이 혼탁한 사회와 중생교화를 위해 다시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효스님은 미륵불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에 모든 중생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원효스님과 같은 분이 바로 미륵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나라가 흔들려 망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정신이 흔들린다면 어찌 나라가 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들은 이 이치를 절대로 잊지말고 더욱더 정신해 혼탁한 사회를 밝게 비추는 등불이 돼야 합니다.

불교는 자기를 찾고자 수행하는 종교입니다. 자기를 알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올바로 밝히게 되면 도의 근원에 합치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와 중생에게 빚지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 “배부르면 부를수록
> 온갖 망상은 불처럼 일어나고
> 편안하면 편할수록
> 욕망은 걷잡을 수 없어
> 공부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㊶

양 형 진

오직 하나의 진리

‘태양의 존재’ 등 자연현상은 한계지녀

제행무상·제법무아 연기법으로 밝혀

과학에서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려는 작업을 한다. 그 중에서 사회과학은 그 대상의 특성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사회 과학 자체가 덜 발달되어서 그런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보편타당한 명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 본다면 사회 현상에 관한 명제만이 보편타당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자연 현상에 관하여 우리가 품고 있는 관념 중에서도 보편적이지 못한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자연 현상에 관한 명제라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관측이라는 인간의 유한한 경험에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온대 지방에 사는 우리들에게만 성립되는 자연 현상이다. 일년 내내 여름인 곳도 일년 내내 겨울인 곳도 얼마든지 있다. 우리의 유한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명제가 보편적일 수 없다는 보기가 될 것이다.

사계절의 순환보다 보편적이며 얼핏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명제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언제나 변하지 않는 진리일 수는 없다.

태양에 있는 수소와 헬륨의 구성비로 미루어 볼 때 태양의 나이는 지금 약 50억년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 한 50억년 정도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50억년 동안 태양계의 구조가 지금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하여도 50억년 후의 어느 날 태양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지구라는 땅덩어리 위의 그 어느 곳에서도 태양의 모습은 사라지고 만다. 이와 함께 태양에서 오던 모든 복사에너지도 공급되지 않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기껏 백여년이라는 생명을 영위하며, 지구 상에 존재하였던 기간 자체가 이삼백만년에 불과한 인간의 입장에서 볼때 그 명제가 틀림없이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단지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이다. 그 명제가 결코 진리일 수는 없다. 더구나 그것은 단지 태양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와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모든 생명에게도 우리 태양의 이야기는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우리는 흔히 일월성진의 움직임이란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다고 믿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수백년 후의 달력까지 만들 수 있지만) 그것도 오직 근사적으로만 참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우주 어디에도 영원히 존재한다거나 영원히 지금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를 가리켜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한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진리라고 알고 있는 자연 현상에 대한 모든 법칙들도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진다.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에서 성립하는 즉 한계를 가지지 않는 자연 법칙이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의 현상에서 시작하여 자연의 대상, 자연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다 부정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정하기 어려운 단 하나의 예외가 존재한다.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하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삼라만상과 그에 관한 모든 원리가 오직 연기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 뿐이다. 오로지 연기법만이 우리의 우주 전체가 공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궁극적인 유일한 절대 진리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크게 의심하라고 가르친다. 이를 대의심이라 한다.

철저하게 의심함으로써 연기법으로서의 우주적 진리 곧 불법이 드러나게 된다. 오로지 연기이므로 제행무상이고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다. 데카르트 철학의 출발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였다면, 불교도의 좌우명은 “나는 크게 의심한다. 그러므로 오직 연기일 뿐이다”일른지 모른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걸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필시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중국명문 한의대학
박사 과정 연수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침구 · 기공)
■기 간 : 8박 9일
■수료증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인 원 : 20명 이내
■출발일 : 1995년 10월 19일(목요일)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 (02)511-2026, 2027, 2028
Fax : (02)511-1080

정신 ·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약물중독 외

■ 수련장 : 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 ☎ (0593) 34-1115~6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월 떠나버리다

하지만 우녀는 무욕도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의 영기(靈氣)로서도 임침지네 셋째부인의 어린 딸이 마치 신이라도 들린 것처럼 난리가 난다는 소리를 하는 것과 그녀 자신의 예감을 맞춰보고 싶은 충동이 컸다.

그런데 이곳에서 오직 수월만이 우녀나 과현과 같은 신령스러운 경지를 아주 못마땅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선수행에서도 어떤 경지에 이르러 특별한 황홀경을 누린다던가 불보살이 현신(現身)하는 것을 체험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그것이야말로 사악한 것이라고 규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 도량을 무당의 시궁창으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노여움을 름어 막대기로 바닷물을 마구 두들기는 일도 있었다. 이런 수월을 그의 단짝인 수원이 말려도 어림없었다.

"수원! 그대까지 그놈의 신통이나 괴이한 예언 따위에 솔깃하고 있는가. 한번 앞과 뒤가 없는 법(法)으로 살기를 작정한 몸일진대 함부로 기울어 질 데가 없는 막다른 데에 처한 것이 우리 공부 아닌가. 며칠동안의 용맹정진중에 관음(觀音)이 보였다던가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불이 달려왔다던가 하는 헛것에 사로잡히는 일이야말로 잡된 도가 아닌 줄 왜 모른단 말인가."

"..."

"수원! 이 무욕도가 그동안 바른 도가 아니라 이상야릇한 수작으로 마치 부처를 다 이룬 것처럼 우쭐대는 것으로 세월을 보낸 죄가 지옥 밑바닥에 닿아있게 되었단 말이네. 아니 그까짓 지옥이라는 것도 어디에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미산이 솟아있는 것도 아니란 말일세… 다 미혹이야 미혹!"

수원은 이런 격렬한 수월의 말들로 오싹 오싹 소름이 끼치는 것이었다.

언제 이 사람이 이런 단호한 규탄을 터뜨릴만한 강력한 의지를 길러냈던 것인가에 대해서 새삼 놀라고 있었다.

"이 사람 수월! 그만 하시게."

라고 이제까지 격의 없는 단짝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만큼 두려운 존재가 된 벗을 조심스럽게 달랬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여보게 수원! 그대는 앞으로 비구니 우녀 따위의 위력에 조금도 놀리지 말게. 우녀를 추앙하고 있으면서 그 우녀에게 푹 빠져있는 애욕 투성이의 인담스님도 이제는 더이상 우리를 인도할 힘이 없음을 알일이야."

"무슨 말인가?"

"그대도 그들과 놀아나서 헛소리나 할테면 하게나… 나는 이놈의 섬이 아주 싫어졌어."

"수월!"

"이놈의 섬에 불이나 지르고 싶을 뿐이야."

수원은 이 말에 깜짝 놀랐다. 그것은 임천지의 셋째여자가 낳은 어린 딸이 이따금 지껄리는 "불기둥이 솟아오른다!"라는 것과 닿아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수월! 자네도 신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네. 자네도 우녀스님이나 물 건너 어린 아이의 예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지 몰라."

수월이 수원의 볼을 쳤다. 수원은 멍멍한채 한동안 어리둥절 하였다.

실로 이상한 것은 수원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볼을 맞은 수원이 혼자 한마디 말을 내뱉았다. "아무래도 이 도량은 끝장날 모양인가. 다시 사람이 살지 않는 옛날의 섬으로 돌아갈 모양인가."

수원은 새삼 고독하였다. 그는 혼자 방선시간을 다 지난 뒤에도 방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만큼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섞여있는 숲언저리로 다가갔다.

그렇게 되자 그때까지 격렬했던 수월이 은채 죽어있는 것도 처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이 혼자 죽어가는 말매미를 보고 중얼거렸다.

"그아말로 너는 이 세상의 스승이었다. 너의 유정(有情)의 설법을 나같은 사람이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 그 소리공양에 의해서 나같은 사람이 도를 깨치지 못했으니… 내 어리석음을 어디에 던질 수 있겠느냐."

그는 수월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신이(神異) 신통(神通) 신령(神靈) 따위의 괴이한 것, 삿된 것, 어지러운 것의 미혹을 참다 참다 규탄하기 시작한 수월의 도전은 실로 뜻밖이었다. 그외의 단짝인 수원 자신도 수월의 어디에 그런 서슬 퍼런 도전이 감추어져 있는지 털끝만치도 짐작할 수 없었다.

과연 진정한 도는 평상(平常)에 있을진대 특이한 경지만을 추구한 것 같은 이적(異蹟)이나 영험(靈驗) 따위는 지극히 설익은 노릇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월은 숫제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다른 세상 권력의 도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나치게 윤회와 전생에 의존하는 조급한 소승(小乘)의 발원(發願)을 한 것에 거의 경멸에 가까운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지옥에 떨어져 지옥중생과 함께 살겠다고? 어리석기는… 천상에 올라가 천상의 복락을 누린다고? 어리석기는…"

그런데 수월은 이곳 무욕도의 수행에 대해서도 여간 신랄한 것이 아니었다.

"공병(空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공부였어! 저 대승의 아버지라는 용수도 그의 중관학(中觀學)에만 유일한 자침으로 주장한 것이라면 그것부터가 공(空)에 떨어지고 마는 악취공(惡取空)일 수 밖에… 잘 따져 보자면 역대 조사들의 총림도 다 이 악취공의 세월이 아니었던가."

이런 대담하기까지 한 수월의 주장은 실로 예고 없는 사태 그것이었다.

아니 수월이 언제 이런 뜨거운 주장들을 내세울만큼 이론을 익혔던 것인가.

그와 함께 자고 깬 세월의 도반인 수원 자신이 이런 수월의 갑작스러운 두려움 자체도 수월이 그토록 경멸하는 하나의 신통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 "그대까지 신통이나 예언따위에
> 솔깃하고 있는가
> 앞 뒤가 없는 법으로 살기를 작정한
> 몸일진대 헛것에 사로잡히는 일이…"

결국 우녀는 수월의 반대로 신도 임침지를 만나러 갈 수 없이 주저앉았다. 그녀가 뜻을 굽혀 배를 타지 않은 것은 수월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 것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이 섬은 수월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우녀가 수월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이곳의 처음을 연 인담에 이어 우녀, 우녀에 이어 수월이 이곳의 주도권을 받아들인 것이 되었다. 수월은 이제까지의 눈에 띄지 않던 처지에서 공부와 살림까지도 그의 도저하기까지 한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46

"내 이름 수월도 내버리고 싶소 법명이나 법호도 다 말라버린 개똥인 것이요"

제풀에 마음을 가라앉혀 평상상태가 되어 막대기로 바닷물을 토닥토닥 건드리고 있었다.

숲속에 들어간 수원은 문득 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거기에 말매미 한 놈이 시들시들 살아있었다. 아니 그것은 살아있다기보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벌써 여름이 다 가버렸구나."

말매미나 그보다 작은 매미는 여름을 충실하게 살았던 것이다. 온몸으로 노래하기를 그칠 줄 몰랐다. 그것은 무욕도의 파도소리에 비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필사적인 소리의 정진이기도 하였다.

여름 한철을 이렇듯이 노래하기 위해서 팡속의 굼벵이로 30년을 넘게 있다가 매미로 되는 그 삶의 역점이 얼마나 처열한 것인가. 그러다가 나무 줄기나 밑둥치에 붙은채 한동안 어리둥절 하였다.

실로 이상한 것은 수월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볼을 맞은 수원이 혼자 한마디 말을 내뱉았다. "아무래도 이 도량은 끝장날 모양인가. 다시 사람이 살지 않는 옛날의 섬으로 돌아갈 모양인가."

수원은 새삼 고독하였다. 그는 혼자 방선시간을 다 지난 뒤에도 방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만큼 소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섞여있는 숲언저리로 다가갔다.

그렇게 되자 그때까지 격렬했던 수월이 은채 죽어있는 것도 처절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이 혼자 죽어가는 말매미를 보고 중얼거렸다.

"그아말로 너는 이 세상의 스승이었다. 너의 유정(有情)의 설법을 나같은 사람이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 그 소리공양에 의해서 나같은 사람이 도를 깨치지 못했으니… 내 어리석음을 어디에 던질 수 있겠느냐."

그는 수월에 대해서도 생각하였다.

신이(神異) 신통(神通) 신령(神靈) 따위의 괴이한 것, 삿된 것, 어지러운 것의 미혹을 참다 참다 규탄하기 시작한 수월의 도전은 실로 뜻밖이었다. 그외의 단짝인 수원 자신도 수월의 어디에 그런 서슬 퍼런 도전이 감추어져 있는지 털끝만치도 짐작할 수 없었다.

과연 진정한 도는 평상(平常)에 있을진대 특이한 경지만을 추구한 것 같은 이적(異蹟)이나 영험(靈驗) 따위는 지극히 설익은 노릇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월은 숫제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다른 세상 권력의 도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지나치게 윤회와 전생에 의존하는 조급한 소승(小乘)의 발원(發願)을 한 것에 거의 경멸에 가까운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지옥에 떨어져 지옥중생과 함께 살겠다고? 어리석기는… 천상에 올라가 천상의 복락을 누린다고? 어리석기는…"

그런데 수월은 이곳 무욕도의 수행에 대해서도 여간 신랄한 것이 아니었다.

"공병(空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공부였어! 저 대승의 아버지라는 용수도 그의 중관학(中觀學)에만 유일한 자침으로 주장한 것이라면 그것부터가 공(空)에 떨어지고 마는 악취공(惡取空)일 수 밖에… 잘 따져 보자면 역대 조사들의 총림도 다 이 악취공의 세월이 아니었던가."

이런 대담하기까지 한 수월의 주장은 실로 예고 없는 사태 그것이었다.

아니 수월이 언제 이런 뜨거운 주장들을 내세울만큼 이론을 익혔던 것인가.

그와 함께 자고 깬 세월의 도반인 수원 자신이 이런 수월의 갑작스러운 두려움 자체도 수월이 그토록 경멸하는 하나의 신통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우녀는 수월의 반대로 신도 임침지를 만나러 갈 수 없이 주저앉았다. 그녀가 뜻을 굽혀 배를 타지 않은 것은 수월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준 것만이 아니라 이로부터 이 섬은 수월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우녀가 수월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이곳의 처음을 연 인담에 이어 우녀, 우녀에 이어 수월이 이곳의 주도권을 받아들인 것이 되었다. 수월은 이제까지의 눈에 띄지 않던 처지에서 공부와 살림까지도 그의 도저하기까지 한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누운 용이 크게 움직이려하매
붉은 봉황이 문득 높이 날도다
(臥龍機動思
丹鳳從翔翔)

이런 게송을 정성껏 써서 갈대정사의 문지방에 붙혀놓은 것은 인담이었다. 그러자 수월이 그것도 찢어 버렸다.

"이따위 있지도 않은 짐승이나 노래하는 것이 무슨 놈의 도란 말이야. 이런 장난이라면 이 섬은 빈 섬으로 돌아 갈 일이야."

우녀만이 그런 수월에게 한번 대들어 보았다.

"스님이 용이고 내가 봉황인데 왜 있지도 않다 합니까?"

"당신들이 지어준 내 이름 수월도 내버리고 싶소. 법명(法名)이나 법호(法號)라 하는 것도 다 말라버린 개똥인 것이요."

그런 말 끝이었는데 비가 뿌리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우녀가 말했다. "비가오니 내 이름이 비의 계집입니다."

이런 말 겨루기로 보아 수월에게는 우녀가 아직 조복(調伏)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무욕도의 사정이므로 인담이나 우녀가 차츰 수세에 몰렸고 과현이 그의 신들린 경지가 움츠러들어 혼자 있기를 좋아하였다.

오직 수원만이 수월에게 때로는 엿보고 때로는 오랜 정을 나누는 사이로 지내고자 하였다. 그런데도 수원이 수월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처지로 된 것이다.

"이 놈의 섬을 떠날까보다."

라고 수원 조차도 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개탄이 있고 난 이틀 뒤 그말이 씨가 되어서 수월은 밤중에 메어둔 배를 풀어서 뭍 쪽으로 떠나 버렸다. 실로 너무 간단해서 어이없는 일이었다.

"나는 지옥에도 천상에도 갈 생각이 없어! 나는 그저 이 나라 사바세계의 아무데나 떠돌다가 나무 옷(棺) 한벌 없이 그냥 쓰러질 것이야!"

라고 어둠 속의 물안개에 대고 말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가을 바다안개의 때였다. 밤새도록 안개 속의 바다에서 파도소리도 그 일대의 것만 들리고 있었다. 이 밤의 바다안개는 다음날 오전내내 장막처럼 채워져 있다가 그것 자체가 따분해지면 슬슬 걷혀서 어떤 배반처럼 서쪽 수평선이 열리는 것이었다.

안개 속의 새벽 예불에 수월이 보이지 않은 것은 당연하였다. 인담이 한동안 찾아보았다.

수원이 말하였다.

"헛수고 입니다.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네?"

하고 우녀가 큰 눈에 걱정을 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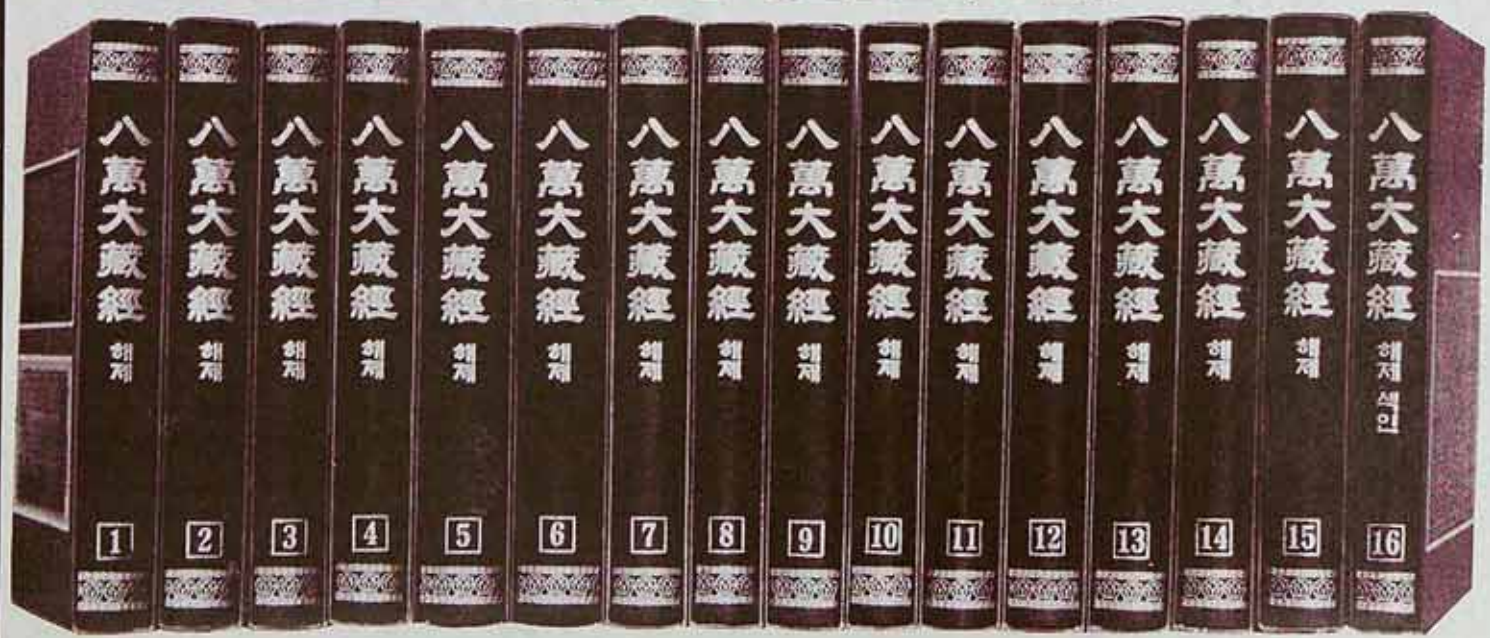
"처음은 싱싱했다가 나중에는 시들어가는 것이 어찌 일새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인 이 회상도 그렇지요."

인담이 그답지 않게 사나이의 눈물 한 방울을 매달고 있었다.

그림 · 조향숙

北韓에서 完全 번역한 순 한 글 해제 八萬大藏經
本社 原本入手
맞춤법 활자체 우리에게 맞게
새롭게 조판하여 出版完了

全十六卷
민족의 혼을안고 도도히 흐르는 영원불멸의 진리!!



八萬大藏經
수백권의 엄청난 분량 다 읽고 전부 배우기란 쉬운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해제로 된 本書 단 16卷만으로도 八萬大藏經의 內容을 쉽고 간략하게 그 核心을 理解할 수 있는 참으로 보배스러운 今世紀 最高의 번역 佛書입니다.

스님, 佛敎學者, 포교사, 佛子, 先生님, 學生, 大學人, 史學者 심지어 他宗敎 聖職者까지도 감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國寶, 世界的 寶物, 神祕의 八萬大藏經
이제 순 한글로 完譯된 八萬大藏經을 우리들 서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색인부가 있어 보고 싶은 부분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라운版 洋裝本
각권 400~700쪽)

정가 ~~350,000원~~ 500질 한정특별할인가 280,000원

販賣元 : 文獻 情報 文書布敎事業部
문의전화 : (02)929-0211~4

"불심과 창작 어우러져 자기 계발 값진 기회"

교계 문학모임 강좌개설 잇따라

가을은 모두가 감성깊은 문학도가 되는 계절!

불자주부 차진숙씨가 여기야말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공간이라 자부하는 곳은 바로 주부문학회(회장 허정숙).

"가족, 친구, 부엌, 시장에 한정돼 있는 시야를 넓히고 여느 문학가 못지않은 제 속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어서 주부문학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차보살은 말한다.

주부문학회가 시작된 것은 올해 초. 불교문학포교원 원장 혜관스님의 주관아래 강좌가 개설되면서 평소 문학에 욕심이 있던 불자주부들이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 11시면 하나둘 모이기 시작, 10여명의 회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시요, 문학이지요. 주부문학회에서는 주부들에게 불교신앙과 문학을 접합시켜 문학창작에 대한 이론과 실기, 시낭송회, 작품감상, 문학순례등을 하고 있습니다"혜관스님의 설명이다.

불교문학포교원은 주부문학회와 함께 매월 넷째주 일요일 문단데뷔 작가와 그를 꿈꾸는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의 모임인 현대불교문학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모임에서는 실제로 창작 작품을 서로 비평하기도 하고 창작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정기적으로 작품집을 발간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석용산스님을 회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덕원 시인학교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와 7시 두차례의 강좌를 통해 불자들을 이끌어오고 있다. 주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시인학교는 새로운 신행형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또 진각문학회도 기성작가 배출과 문집발간등 89년부터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같은 문학회 외에 책을 읽고 서로의 감상을 토론하는 사천왕사 즐거운 책읽기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문학의 대중화와 더불어 불자들도 과거 수동적으로 읽는 문학에서 탈피해 각종문학회와 독서모임교실등을 통해 이제 직접 참여하는 문학으로 동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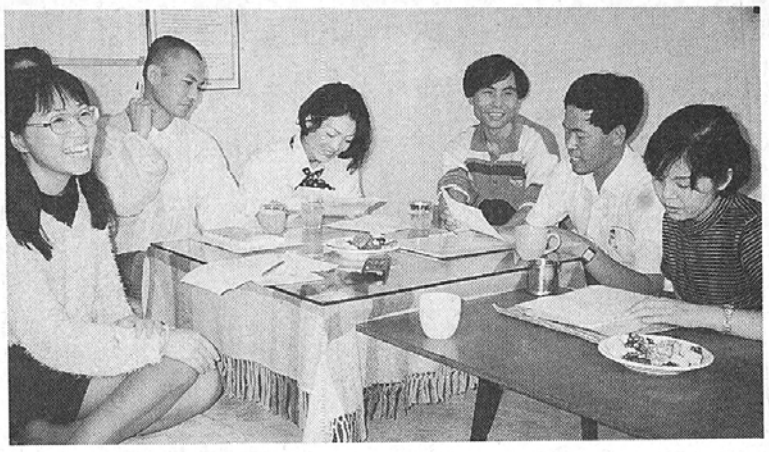
특히 요즘 불자들은 자기실현욕구가 강해 그 욕구 표출의 계기를 삼기도 하고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문학회의 미약한 환경개선과 더많은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하면서 가을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캠프 등도 운영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문학회에 참가하고 있는 불자들은 "정체돼 있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내 이름을 달고 쓰여지는 글을 쓰는게 즐겁다"면서 "다양한 불교문학한 방법으로써 문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의 교실의 운영으로 신행의 폭이 더욱 넓어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자 기자



◇매주 일요일 모임을 갖고 있는 현대불교문학회 회원들이 '불교문예' 발간 준비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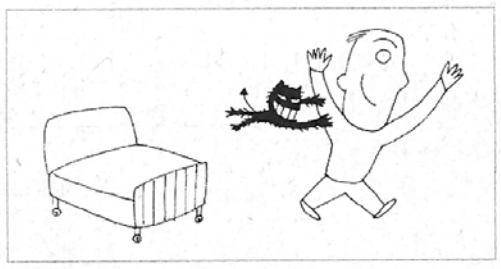
주부·직장인·학생등 참여계층 다양

문학단체	강좌·모임	연 락 처
주부문학회	매월 셋째 금 오전11시	(02) 308-9520
현대불교문학회	매월 넷째 일 오후2시	〃
공덕원시인학교	매주 목 오후2시, 7시	(053)741-0077
사천왕사 독서모임	매월 둘째 넷째 금	(02) 939-3900
진각문학회		(02)512-6567~8

이근후 건강칼럼 <36>

콜레라 대비책

잠복균 추후 발병 가능성…방역 체계 세워야



콜레라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개의 경우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면 콜레라는 가라앉게 되는데 이번 콜레라는 그런 것에도 아랑곳 하지 않나 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콜레라의 원발생지역이 인도의 갠지스 유역이 아닌가 하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콜레라의 특성은 한번 발생하면 광범위한 지역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이런 확산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온 이야기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것이 지역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원인균인 콜레라균도 변종이 생겨 세대교체를 이루었다는 점도 들수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치사율이다. 원래 콜레라는 한번 걸리면 사망하는 율이 50%를 웃돌았으니 가히 치명적인 무서운 병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콜레라는 치료방법이 발달됨으로써 치사율이 1% 정도밖에 안된다.

이 콜레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포만을 갖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콜레라가 번지면 수산시장이 문을 닫을 정도로 한산해지는 이유도 바로 지나친 공포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이다. 생선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생선을 익히지 않고 먹는다면 그것은 콜레라야 들어오너라 하고 내몸을 맡기는 경우와 같겠지만 극단적으로 오염된 생선일지라도 잘 익혀 먹게 되면 콜레라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진국에서는 여행자들이 묻혀 들어오는 콜레라로 인해 발병을 하더라도 철저한 치료와 예방으로써 금방 박멸하고 만다.

콜레라의 대처를 위해 다시 한번 몇가지를 당부해 본다. 첫째 무조건 익혀 먹어야 한다. 익히지 않은 것은 여하한 것도 먹지 않는다. 물도 끓인 것을 마신다. 두번째로는 외출했다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거나 샤워를 한다. 세번째로는 콜레라 발생지역에 가까운 곳은 여행을 삼가한다. 이런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설사를 경험하게 되면 곧바로 의료적인 진단과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보기에 간단한 이런 몇가지만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지켜준다면 콜레라는 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회에 우리들이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방역체계이다. 이번 콜레라의 유행은 충분히 예견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좀더 신속한 대처를 철저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미 잠복한 콜레라균은 내년에 발병시킬 위험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균자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콜레라에 대한 지나친 공포도 금물이지만 소홀한 대비는 더 큰 재앙을 가져다준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늙음의 장 *
배움이 적은
사람은
황소처럼
늙어간다



이 향 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전화:(02) 723-5665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기자증 분실
•성명 : 이 경 숙
•소속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기자증번호 : 440487
•분실일 : 1995. 8. 5
•분실사유 : 지하철내서 분실

공장부지 급매
■위치 : 화성군 남양면 소재
■평수 : 약 4천평 정도
연락처
0339-356-8383~5
011-278-0469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업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화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시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만 보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국민은행 남영지점 822-24-0171-328(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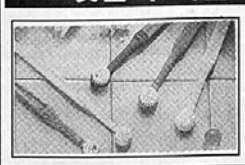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대 표 이 규 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농협억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02)556-3076~7 ■팩스:(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대한직도움)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씨비스 080-023-4600

죽음은 또다른 삶의 이름

'죽음' 다룬 책 3권 동시 출간

두려움 대상 탈피 종교·철학적 접근 '관심'

"나이가 칠십이 넘고보니 인생의 무상함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곧 내게 닥칠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스님에게 보낸 신앙상담의 내용이다. 단지 고령의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의문이 아니다.

종교는 죽음과 같은 한계상황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궁극적인 해석을 하게하는 것이라는 종교사회학자의 종교정의를 빌리지 않더라도,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최근 '죽음'을 주제로 한 세 권의 책이 동시에 나왔다. 〈삶 그리고 죽음〉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에 임하는 태도〉로, 대한교과서에서 '죽음의 미학選' 시리즈로 펴냈다. 모두 죽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삶 그리고 죽음〉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철학·종교연구실이 최근 개최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종교적 성찰'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엮은 책이다.

이 책에서 목정배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불교에서 보는 죽음과 관련 '생사 즉 열반은 공의 실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불교는 죽음, 업과 윤회, 그리고 열반을 하나의 교리상에서 파악하였고, 또한 이러한 현실을 공(空)의 지혜로써 해결하고 있다"고 밝히고 "참다운 나의 발견과 그에 입각한 무지의 소멸을 통해 생사윤회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경지가 바로 열반이며, 따라서 열반의 증득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삶 그리고 죽음〉은 이밖에도 '불가철학에서 본 삶'을 비롯 '노장에서 본 죽음의 문제' '기독교에서 본 삶' '실존철학에서의 죽음의 문제' 등 유교 기독교사상 및 철학에 나타난 생사관을 다룬 10편의 논문을 실어 삶과 죽음에 대해 본격적인 종교·철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는 '인간을 훌륭하게 성숙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의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일본 상지대학 카운셀링연구소가 주최한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을 묶은 것으로, 죽음을 직접 지켜본 임상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철학자 임상간호사 가족 등 아홉사람의 임종보고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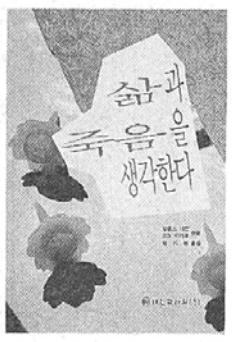
〈죽음에 임하는 태도〉는 일본의 의사이며 작가인 우에다 미요지의 '죽음 수상기'.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죽는다고 죽는다고 마음을 정리해놓고 있다가도 문득,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 감격스럽기까지 하다"는 고백에서 처럼 죽음을 앞둔 절망감과 삶에 대해 차분히 정리하는 마음의 여러 무늬를 담담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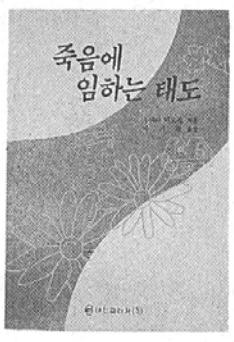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자상하게 다리를 옮겨주는 등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픈 덕택에 맛보는 살가운 우정의 확인"이라며 병문안을 통해 나누는 삶의 마지막 기쁨을 전해주기도 한다.

이들 책의 공통점은, 죽음은 삶과 대립되는 것 또는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는 선지식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죽음은 종교와 철학과 삶의 또다른 이름임을 확인케 해준다.

정성운 기자







불서출판계 '저작권' 몸살

번역서 '할인' 등 자구책 마련 부심

日의존 불교학술서적 타격 예상

국제저작권협약 파고가 불서출판계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불서출판계에 가장 큰 타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87년 10월1일 이후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협정 체결없이 발행된 도서는 96년 1월부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도서출판 민족사는 번역서인 '깨달음총서' 전 45종을 정가의 50%로 할인판매키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출판문화협회 등 출판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지불및 판매금지 조처를 99년까지 유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내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윤청광 출판문화협회 부회장은 국내저작권협약이 불서출판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일본불교학에 크게 의존하는 불교학술출판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저작권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미국 등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 96년부터 번역서 판매금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8년 〈한국불교사〉(가마타 시게오)를 첫 권으로 펴낸 '깨달음총서'는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할인판매 문의는 (02)732-2403~4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지금 이자리에서의 깨달음	데시마루	장 승
2	선문촬요	휴 정	불서보급사
3	소설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4	무엇하러들 오셨는가	돈 연	미 학 사
5	영가천혼법어	석 성 우	토 방
6	달마의 제자들	고 우 영	불 지 사
7	사랑하는 나의 작은 우주야	이 혜 옥	솔 바 람
8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9	선 100문100답	진 제	파란나라
10	아름의 빛으로 따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강 자 우	밀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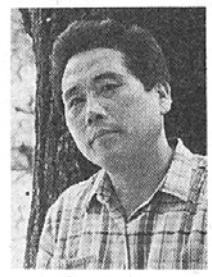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지장경'

이타행 실천 삶의 궁극목표

집착서 벗어나는 방법제시



정 동 주
〈소설가〉

'어린이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한 어느 철학자의 글을 읽은 것은 오대산 기슭에서였다. 그때 나는 유물사관으로 현실을 읽어내려고 꽤나 열정적이었다. 아니 광적이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그 무렵 자우스님을 만났다. 날마다 불을 토하 듯하는 내 궤변에 인욕정진을 할 따름이던 자우스님이 떠나면서 입을 열었다.

유물사관이든, 맑시즘이든 삶에만 너무 공력을 들인 것 같다는 얘기 끝에 나도 사는데만 너무 몰두하는 것 같다면서 그의 바랑에 들어있던 책 두권을 던져주었다.

그중 한권이 〈지장경〉이었다. 나는 레오버스카글리아교수의 죽음에 관한 아주 얇은 책을 먼저 읽고나서 마지못해 지장경을 보았다. 읽어갈수록 인내심이 필요한 경전이었다. 지루하고 따분했다. 뒷쪽의 '지장보살영험록'은 기묘한 전설같았지만 재미있었다.

그 당시 우리사회는 '발전'과 '개발' 지상주의여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고, 제 자리 지키는 것은 위험한 짓이었다. 발전은 앞으로, 위로, 옆으로, 때로는 아래로도 파들어가는 적극적인 변화였고, 마침내는 변화와 파괴가 혼동되기에 이르렀다. 그 따분한 지장경을 한번 겨우 읽고 던져버리려고 하다가 자우스님 얘기를 떠올려 다시 읽게 되었고, 연달아 세번을 읽어냈다. 사는 데만 급급하다보면 생명있는 것을 죽이는 짓조차도 정당화시키려는 착란에 빠져들기 쉽다는 자우스님 얘기였다.

'지옥이 다 비워지지 않고서는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는 전혀 뜻밖의 글귀가 눈에 겨우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세번째 읽을 때였다. 철저한 이타행, 오직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삶의 궁극 목표로 삼는 지장사상을 느끼게 되면서 나는 자우스님의 말속에 감춰진 뜻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내가 26년간 살아온 것은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어렴풋하게 깨달았다. '이롭게'와 '해롭게'는 글자 한자 차이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남을 이롭게까지는 못할지라도 해롭히는 짓으로 먹고 살지는 않게 되기를 서원했다. 권력 가까이 가는 길을 포기했다. 그때는 그게 옳은 것 같았다. 그때의 그 결정 이후 20년도 더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여전히 기쁘다. '지장경'은 죽음을 삶만큼 아니 삶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쳤다.

현실적 삶에만 매달리는 것 자체는 자칫 남을 해(괴)롭히는 짓이 되기 쉽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파괴와 생명위기에는 이기적인 삶에만 광적으로 집착해온 우리들 스스로가 자초한 재앙일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죽음의 참뜻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오래 살아야하고 그들도 자식을 낳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禪 수행자 인식세계 묘사"

김인수 장편소설 '달마는 꽃속으로…'



◇김인수씨

'불교신문' '해동불교' '대한불교' 등의 편집국장을 지낸 불교언론인 김인수씨의 장편 〈달마는 꽃속으로 날아간다〉(현상과 인식 刊)가 선(禪) 수행자의 의식의 흐름을 골간으로 '실재'와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선소설의 새로운 테마개척이란 평을 듣고 있다. 선수행자의 구도여정이 아닌 바로 정신세계의 문제를 이틀간의 입정과정을 통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비구니 자효스님의 인식은 현대과학의 실증적 세계관과 선수행의 돈오적 직관의 치열한 대립 양상에서 실오라기를 풀어가듯 자성(自性)의 묘체를 더듬어 가고 있다. 이는 혼돈의 시대를 지켜가는 수행자의 내적 방황과 외부세계와의 치열한 싸움이기도 하다.

결국 작가 김인수씨는 이 소설을 통해 주인공과 비슷한 고뇌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의 인식구조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산' 작가 홍주스님 월북기도설 "논란"

1967년 당시 불교계의 현실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구도자의 바른길을 제시한 문제작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소설 〈하산〉의 저자 홍주스님의 사망과 관련한 월북기도설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홍주스님은 임진강을 건너 월북하려다 국군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홍주스님의 유족들에 따르면, "시체수습시 총격에 따른 외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월북기도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출판가 화제

한편 〈하산〉을 재출간한 불지사(277-2676)는 홍주스님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홍주스님이 월북을 기도했다'는 결론을 유보키로 하고 당시 홍주스님과 인연이 있었던 도반스님들과 불자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나온 책……

▲지장보살본원경 강의(한정섭 지음)=지옥중생들을 다 구제하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며 6도중생의 고난소멸의 서원을 담은 지장보살본원경 강의록. 지은이가 조계사 신도회 등에서 행한 강의 내용을 도솔천궁 신통품을 비롯 '지장신앙의 발원' '지장경의 종류와 유통' '경의 제목해설' 등 19개 강의로 엮었다. 〈불교대학교재 편찬위, 6천원〉



▲불교의 효(이동형 편저)=효행의 실천과 그 복덕을 설한 경전을 한데 묶었다. 수록 경전은 지장보살본원경 부모은중경 우란분경 불설속명경 불설진학경 등. 〈수문출판사, 8천8백원〉



▲불교입문(석서진 지음)=부처님 마음의 본원을 설한 불설무량수경에 입각한 불교입문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 '수행' 등 7장으로 구성했다. 〈반야회, 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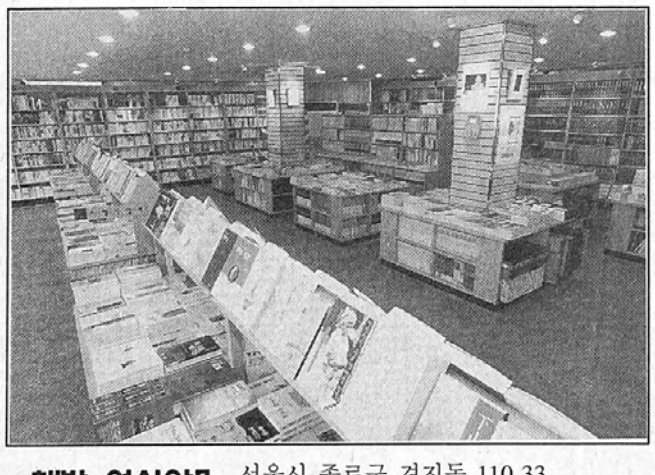
▲그대안의 보물을 두고 왜 헤매고 다니는가(최성문 지음)=한 재가수행자의 불교수상집. '깨달음의 길' '나날이 좋은 날' '선이야기' 등 60여편의 글을 통해 불법이란 글장난이나 말장난이 아니고 깨침이며 해탈이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림출판, 6천5백원〉



▲윤회의 진실(지나 서미나라 지음)=〈윤회의 비밀〉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미국의 심리학자 지나 서미나라의 윤회이야기. 철학, 투시와 초능력, 무대예술, 언어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윤회라는 일관된 주제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원제는 '수많은 삶, 수많은 사랑'. 〈정신세계사, 6천원〉

불을가득,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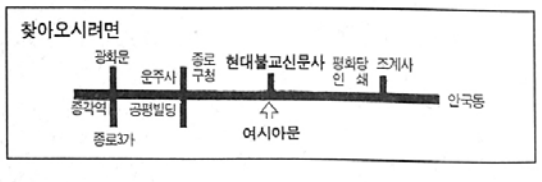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중략)…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휘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

관본을 달리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이 82종이나 출간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님의 침묵〉은 1926년 회동서관 초판 단행본 시집의 발간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70여년간 꾸준히 발간되고 있으며



◇시집 '님의 침묵'은 70여년 동안 같은 제목으로 영문판등 82종이 나왔다.

만해시집 '님의 침묵' 82종

전보삼 교수 수집…영문판도 3종 나와
20일부터 '책방 여시아문'서 전시예정

영문판도 3종이나 간행됐다.

이 책들은 만해사상연구회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가 수집,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천돼 온 근·현대 문법표기의 문제와 거듭되는 간행에 따른 '님의 침묵'이라는 뜻의 왜곡과 굴절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 인물의 한 시집이 80% 이상 하나의 제목으로 판본을 거듭하기는 전무후무한 일로 꼽힌다.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이 이처럼 꾸준히 발간된 것은 우리 근·현대사를 이끌어 온 정신적 지주이며, 민족정서의 근간임을 대변한다.

또 만해스님의 문학과 사상을 대표하는 정신이 바로 '님'과 '침묵'이라는 것이 면면이 인식돼 왔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과서에마저 원본과 틀린 '님의 침묵'을 교육하고 있는데 개탄, 원본에 가까운 '님의 침묵'을 복간하고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10여년간 82권의 만해시집을 수집해 온 전교수는 "제목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집 〈님의 침묵〉 관본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수는 "시공을 초월해 영원히 읽혀질 〈님의 침묵〉의 거듭된 판본에서는 그 당시 스님 나름대로의 맞춤법, 띄어쓰기, 조어, 방언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어의 흐름과 출판의 현주소를 알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82종의 관본은 현대불교신문과 책방 여시아문 참간·개관 1주년을 기념, 만해사상연구회와 함께 10월 20일부터 책방 여시아문에서 전시될 계획이다.

만해스님 영정, 만해시비 사진 액자, '님의 침묵' 전문 등도 함께 전시될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에는 '〈님의 침묵〉 관본 수집의 의의와 과정(강사-전보삼교수)'과 ''님'과 '침묵'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도 열린다.

도필선 기자

불심시심 〈33〉

뜬 구름에 견준 몸

天眞面目是何文 (천진면목시하문)	천연진여의 모습 무엇으로 표현해
性自聰明露見聞 (성자총명로견문)	본성은 스스로 총명해 보고 들음 드러나
覺察尋常元有路 (각찰심상원유로)	심상함 깨닫고 살핌 원래 깊이 있지만
瞑離日用別無門 (규리일용별무문)	일상의 일 벗어남은 문이 따로 없지
須知濕體波全水 (수지습체파전수)	물젖음의 본체 알면 파도가 모두 물이니
莫倣珠形影異分 (막괴주형영이분)	구슬 하나에 형태 그림자 구분됨 이상치 않아
認得色空無二道 (인득색공무이도)	색·공에 두 길 없음 알면
百年身世等浮雲 (백년신세등부운)	평생의 이 몸 뜬 구름에 견줄 수 있어

이 시는 영허대사의 도화(道話)라는 시이다. 곧 진리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진리란 천진한 것이다. 천이란 자연이요, 진이란 참다움의 실상이다. 이 천진한 표면 이것이 진여의 세계이다. 여기에 무슨 꾸밈이 있는가. 인간의 글로 대표되는 문(文)은 의도적인 꾸밈이다. 그러기에 때로는 진여실상과는 거리가 먼 헛됨의 허무함일 수가 있다.

사람은 원래 총명한 것이다. 그것이 타고난 본성이다. 그러나 어리석음에 이끌려 가리워지면 보고 듣지 못한다. 따라서 본성의 밝음을 천연의 상태로 지키면 모든 보고 들음이 밝히 드러난다.

진리는 일상의 보통의 것이니 여기에서 찾을 것이지 따로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용의 모든 사리가 바로 진리이기에 따로 길이 있어 찾아 헤맬 것이 없다. 행주좌와의 일상이 바로 길이다. 마치 물젖음의 속성이 바로 물의 본성임을 안다면 파도와 물이 둘이 아니요 모두가 젖음의 습성에서 이는 각각의 형태임을 알 것이다.

구슬의 둥근 형태는 형태로서의 본체이나 비침의 자리에 따라서는 둥금이 아닌 타원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고 실체보다도 크고 긴 나무가지일 수도 있다. 그는 처지의 다름에서 오는 그림자의 다름이지 원체의 변화는 아니다. 처지의 다름은 그 처지로 이해함이 바로 처지에 따라 대응되는 변화의 기틀인 것이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심상한 일상사에 별다른 문이 없음이다.

온갖 사물이 있다·없다(色·空)의 대칭으로 맞서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대칭이 대칭으로만 맞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의 자리에 있어 없음이 전제되어 있음이 있고, 있음이 전제되어 없음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뜬 구름으로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동심은 불심' 아동미술잔치

조계종, 22일 도선사서…7백여명 참가

'95 미술의 해 기념 '제3회 불교아동미술잔치'가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 주최로 오는 22일 10시30분부터 도선사 일원(예정)에서 개최된다.

불자어린이들에게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이번 불교아동미술잔치는 국민학생은 물론 유치원생 및 미취학 아동 7백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도심속의 사찰에서 아동들에게 친근한 불교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창작욕구의 증진을 도모해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행사 당일에는 목동청소년회관 강사가 출연, 어린이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선보이다.

찬탄·참회 '신곡 두편'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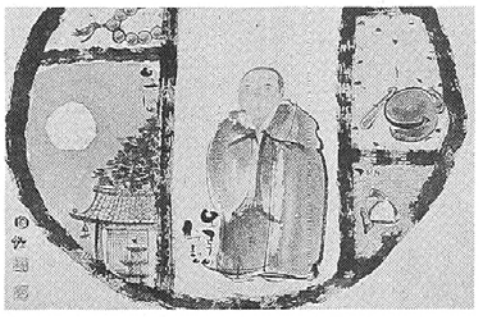
불광마하보디합창단 11일 정기공연

불광 마하보디합창단(부지휘자 윤순자) 제1회 정기발표회가 오는 11일 오후 7시 리틀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열린다.

90여명의 마하보디 단원이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광덕스님 작, 정부기교수 곡 '님은 태양위 태양' '혼자 있을 때' 등 찬탄과 참회의 2곡이 신곡으로 발표된다. 또 바라밀다 남성중창단, 한마음선원합창단이 찬조출연해 찬불가를 연주한다.

뿐만아니라 2부에서는 정영주 문혜옥 강희영 국을경씨가 출연, 오페라에서 현대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한다.

한편 불광 마하보디합창단은 지난 92년 '보현행원송' 발표에 이어 내년 4월 18, 19일 국립대극장에서 광덕스님의 시에 박범훈교수(중앙대)가 곡을 붙인 '부모은중송'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부모은중송'은 〈부모은중경〉을 풀어 쓴 장편시를 2악장의 합창곡으로 구성한 창작국악 교성곡. 〈본지 21호 13면〉



◇원성스님 作 방벽형 구성화 '예불'.

승가대 기금마련 원성스님 개인전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스님) 김포이전에 따른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원성스님(사회복지학 1) 개인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전통 한지와 화선지에 동양화 물감으로 채색한 1백여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자스님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하여 선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천진 불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인전에서는 수채화 관음도와 방벽형 구성화의 독특한 형식의 작품을 눈여겨 볼만 하다.

이번 전시회에서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중앙승가대학 학사이전 기금으로 희사할 예정인 원성스님은 선재이벤트와 손잡고 캐릭터 상품과 달력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백현순 무용단 내무부장관상 수상

제4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했던 백현순무용단의 「공-우리는 무엇이고 싶다」가 내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무용제는 지난달 14일~22일 대구에서 열렸다.

수상작은 불교의 '공'사상에 인간의 욕망이 갖는 허구성을 접맥시켜 인간본성의 가치를 재인식시킨 작품으로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 율동의 조화, 내용의 깊이 등이 주목받았다.

어린이 까치마을 백일장 열려

22일 서울·경기지역 국교생 대상…용산공원서

사회복지 까치마을(촌장 법전스님) 주최 '제1회 어린이 까치마을 백일장'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용산가족공원에서 마련된다.

봉사의 참 의미를 되새겨 항상 이웃과 나눠 가지는 일을 생활화 하는 정신을 어린이 불자들에게 심어줘 부처님의 참뜻을 느끼게 한다는데 개최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이번 백일장은 서울·경기지역 국민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선재이벤트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백일장 외에도 레크리에이션 및 단체대항 게임 등이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02)433-1506

이희탁씨 첫 개인전

'유년의 기억 이희탁전'이 지난 3일까지 종로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씨는 어린시절의 단상을 그려낸 작품, 20여점을 처음 선보였다.

판소리로 듣는 '부모은중경'

정광사 개원기념…7·8일 안숙선씨 공연

〈부모은중경〉이 판소리로 완창된다.

방배동 정광사(주지 송암) '개원기념 명창 안숙선 판소리공연 부모은중경'이 오는 7, 8일 정광사에서 발표된다.

불교의 전통 화청의 한 유형으로 '회심곡'등이 전해 왔으나 경전이 판소리로 개작돼 공연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부모은중경〉은 청보리회 상주법사인 김재영법사가 대본을 가다듬고 안숙선씨가 판소리로 짰다. 안숙선씨는 '부처님 일대기'를 판소리로 엮어 완창하는등 불교 판소리 창작에 몰두해 왔다.

공연은 7일 오후7시와 8일 오전 10시30분 두번 펼쳐진다. (02)598-5291

문화재단신

중원미륵사지등 정비 충주시, 이달말 완료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원미륵사지 정비사업등 10대 문화재정비사업이 10월말까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초 억정사 대지국사비 정비등 훼손이 심하거나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 10점을 선정, 사업비 11억8천2백만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20일 현재 전체공정의 70%를 달성한 상태.

10대 정비사업중 엄정면의 억정사 대지국사비 정비, 신니면의 승선사지 지표조사사업등은 이미 끝냈으며 중원미륵사지 정비사업도 90%이상을 완료하는등 10개중 이미 4개는 9월말까지 모두 마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문화재대관 출간

경기도 고양시 문화원(원장 어한)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때 훼손돼 터만 남아있는 중흥사·행궁(行宮) 등을 비롯, 각종 문화재를 집대성한 5백48쪽자리 〈고양시문화재대관〉 1천5백권을 출간했다.

시·군 단위로 이같은 대규모 문화재대관을 발간하는 것은 전국에서 고양시가 처음이다. 이 책에는 보물급 태고사원증(圓證) 국사탑과 시목(市木)으로 지정된 수령 5백60년의 백송(白松) 등과 유적 4백여점의 위치·현황등을 시대별로 수록했다.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밥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깊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잠조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말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활활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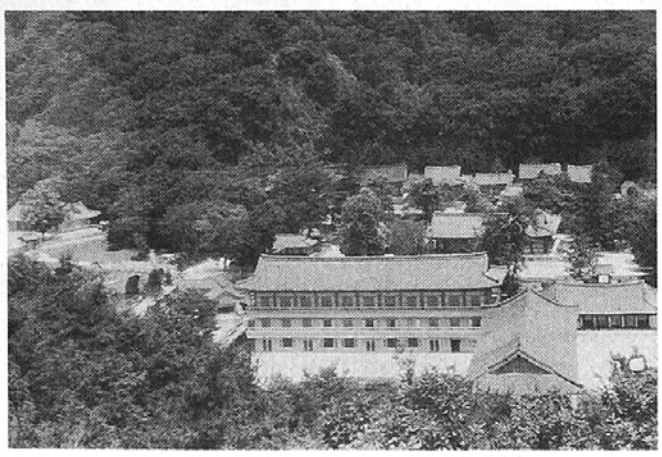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납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마 MATZU 조 JOSHU 임 RINZAI 제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30년 중창불사가 완성된 최근의 직지사 전경.



◇1970년대 불사초기 직지사. 신축한 칭풍료등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직지사 30년 중창불사 회향

성보박물관 개관·세미나·음악회등 다채
만덕전등 34개동 신축 국제포교 기틀다져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녹원)가 30년간의 가람 중창불사를 마치고 다채로운 회향행사를 갖는다.

지난 66년에서 71년까지의 청풍료 신축에서 지난해말 사찰주변정리까지 직지사는 30년간 건물신축 34개동등 총 54건의 사업을 완료했다. 〈주지 녹원스님 인터뷰 7면〉

직지사의 중창불사 회향은 중부권 포교의 극대화와 국내외 불교 연수장의 활용을 통한 국제포교의 기틀마련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본행사와 5건의 기념행사 특별계획등 직지사 중창불사 회향행사 일정은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다. 다음은 각 행사내용과 일정.

▲**회향법요식**:10월19일 오전 11시 만덕전앞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1만여 사부대중이 동참할 예정이며 육법공양과 국악관현악 연주 범패시연등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중계할 계획이다.

▲**중창불사 사진전시회**:9월25일부터 10월19일까지 만세루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중창불사 과정을 담은 사진과 성보박물관 소장품 등이 소개된다. 직지사 경내를 안내하는 기념자료집도 이 기간동안 배포된다.

▲**만등탑불사**:만덕전앞에 만등탑을 세워 15일부터 1주간 등을 밝힌다. 2만2천명의 불자가 등을 밝힐 수 있으며 회향행사 동참금 1만원을 접수하면 등1개를 점등할 수 있다. 탑은 황룡사 9층탑을 모형으로 했다.

▲**성보박물관개관**:17일 오후1시에 개관법회를 갖는다. 박물관에는 국보 208호 금동육각사리탑 등 국보·보물등 국보급 문화재와 중창불사중 발굴된 문화재 등이 전시된다. 개관식에서는 직지사 성보안내책자가 배포된다.

▲**기념세미나**: '신라불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17일 오후2시 설법전에서 개최된다. 동국대 권기종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초전불교의 제문제'(김상현 교원대교수) '신라고승들의 사상과 시대적 역할'(정병조 동국대교수) '신라 삼국통일과 오늘의 분단현실'(민병천 동국대전총장) 등이 주제발표된다. 토론에는 종범스님(중앙승가대교수) 신종훈(강원대교수) 목정배(동국대교수) 윤이흠(서울대교수) 서윤길(동국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산사의 환경음악회**:잔디광장에서 15일 오후3시에 열린다. 경북도내 불자지역지도장 등 지역불자들을 대거 초청해 열리는 이 음악회는 국토환경문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자리로 기획됐다. 녹색지대, 정수라, 신영희, 박영미, 이윤수, 온새미로 등의 인기가수와 국악인이 출연한다.

▲**외국불교대표자 초청**:중창불사 회향을 계기로 국제불교회관 등을 소개하기 위해 중국 일본 스리랑카 등지에서 불교지도자를 초청 회향법회의 의의를 더할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구화산 기원사 방장 인덕스님과 중국불학원의 연기법사 등이 일본에서는 정토종 종정 나까무라 고류스님 대정대 미시가미젠노스님 등이 스리랑카에서는 아맘마푸라종 종정 마리해 파나시하스님 담마비하리 대승정 인도대각회 총재 위풀라싸라 대승정 등이 초청된다. 초청기간은 17일~20일이며 기간중 회향법요식참석 조계종 총무원예방 동국대학교 예방등의 일정이 계획됐다.

임연태 기자

지수심 대전수등 4명
진각종, 스승 정년퇴임

진각종(통리원장 락혜)은 지난달 25일 대구 크리스탈호텔에서 스승정년퇴임식을 봉행했다.

전국 각 심인당 주교를 비롯 1백50여명의 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통리원장 락혜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종단발전을 위해 그동안 피땀어린 노력으로 진각종이 반석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한 스승은 지수심 대전수, 정심화 대전수, 수덕사 대전수, 일현정사등 총 4명이다.

광수사 낙성식 봉행
천태종, 1천2백평 규모

대한불교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문덕스님)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낙성식 및 삼존불 천오십삼불 봉안식을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했다.

대전 계산동에 건립된 광수사는 지난 93년 착공, 총1천2백여평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3층 삼존불 및 천오십불이 모셔지고 지하와 1, 2층에는 식당 및 기도실을 갖춘 다목적 불교회관으로 건립됐다.

종교법인법 개정
日정계 '갑론을박'

일본에서 '옴 진리교' 사건 이후 거론되기 시작한 종교법인법 개정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자민당이 "현행 종교법인법은 어떤 종교단체든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쉽게 종교법인 등록이 되고 사후실태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 옴 진리교같은 사이비 종교가 창궐하고 있다"며 법개정의 의사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이에대해 야당과 종교단체들은 "종교법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강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문제의 정치쟁점화는 신진당이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창가학회의 덕을 톡톡히 봤던 것과 관련 정당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창가학회' 힘줄이기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측도 많다.

"불행없는 세계일화"
달라이라마 인터넷 송고

미국의 불교잡지 트리싸이클(TRICYCLE)이 '당신이 불교에 귀의했다는 것이 삶에 주는 의미는…'이란 주제의 설문을 인터넷에 올려 세계불자들의 불교에 대한 신념과 신행 의지를 파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잡지의 질문에 대해 마하고사난다스님(캄보디아)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먹으려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붓다는 이 고통을 볼때 눈물을 흘린다"고 답했다. 또 달라이라마는 "살아있는 존재가 남아 있는 동안 그때까지 나는 세계의 불행함을 없애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해 그의 평화정신을 다시금 일깨우기도 했다.

방송가소식

종하스님 월말까지 사장직대

BBS 이사회 결의

○…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이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인 사장직무대행직을 겸직한다.

불교방송은 지난달 22일 19명의 이사중 1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19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장직무대행건과 관련 강한필 사장직대직을 해임하고 종하이사장이 사장직대를 맡아 3인의 직원(이정 김재진 이태호국장)을 인사조치하고 방송국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10월말까지 사장직무대행을 겸직토록 했다.

정동호씨 추천 존중

○… 지난달 22일 진흥원 이사회에서 불교방송 사장후보로 추천한 정동호의원(무소속·함안 의령)건은 '추후 진흥원에서 보내는 정동호사장 추천공문을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이와관련 조계종 불교방송 특위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정상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판단, 이제까지 인사문제에만 매달렸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불교방송의 경영등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지난달 26일부로 조계종 스님들의 불교방송 험찬, 출연금지를 해제키로 했다.

"기일내 정상화 시킬터"

○… 한편 사장직무대행 종하스님은 지난달 23일과 26일 종훈스님과 안영수차장을 총무국장과 총무국차장으로 원상복귀시키는 첫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어 27일 불교방송 15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업무추진을 위한 외부인사영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주어진 기일을 엄수하여 이사회의 결의대로 방송발전 저해 장본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으나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해외프로 제작지원
btn, 씨에프랑스와 계약

불교텔레비전의 제작인력은 총 1백명이며 이중 임시직이 34%에 이르고 장비투자부분도 케이블TV 공급업체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교텔레비전은 지난 25일 7층회의실에 교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영현황을 밝혔다.

불교텔레비전은 앞으로의 동향과 관련 사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씨에프랑스와 해외프로그램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불교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불교TV알리기 운동을 10월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자원봉사단을 10월중에 발대하여 운용하고 가족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찬란한 여명'
14일로 방송연기

개화승 이동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KBS-1TV '찬란한 여명'이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촬영장이 악화돼 첫방송이 지난 30일에서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가수 장필순 콘서트

불교방송의 '밤의 창가에서'를 진행하고 있는 장필순씨가 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마당세실극장에서 4집앨범 발표를 겸한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나를 찾아서' '하루'등 새노래가 선보이고 있다.

교계언론 통합론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달 26일 개최한 월례토론회에서 교계언론 통폐합이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모임은 교계의 중진언론인들이 불교언론을 주제로 자리를 함께한 첫 공식회동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일부에서 논의되던 언론통합이 이번 토의자체만으로도 교계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기에 충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홍사성국장(불교텔레비전)은 매체포교의 활성화 방안가운데 하나로 유사매체간의 통폐합추진을 제안했다. 홍국장은 "신문 라디오 TV를 통폐합하면 경영, 제작, 인력활용면에서 효율적이어서 매체를 통한 포교의 극대화를 이룰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통폐합이 어렵다면 매체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통합운영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김종찬국장(불교신문)은 "언론통합은 원천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다"고 전제하고 "언론이 무소불능의 힘을 얻게 되었을때는 보도내용의 신뢰성, 언론인의 사명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통합논의는 발행인(소유) 편집인(경영관리 편집) 언론인(보도)의 삼권분할이 최소한 확보되었을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방속에 토론자들은 대부분 '교계언론통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혀 이날 토론에서는 일단 반대론의 우세로 끝났다.

교계 언론통폐합은 이미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거론되었다. 불교텔레비전 출범이후에는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교계언론의 통폐합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열악한 교계언론의 현실을 타개하는 방편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과 당위간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불교언론의 통합논의가 불교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탈할 수 없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일이다.

이준엽 기자

목탁소리

뒷짐진 재야단체

지난달 27일 대불련 회원들이 조계사에서 불자들을 상대로 5·18 책임자 처벌과 특별법제정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그렇지 않아도 불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5·18문제와 관련해 교계 전체가 침묵하고 있다는데 대해 어리둥절해 하고 있던 차였다.

18일 이웃 천주교는 14개 전 교구가 서명운동을 벌여 12만여 천여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까지도 교계는 8월 조계종 중앙종회와 실천승가회가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를 요구하는 단 한 번의 기자회견과 몇몇 단체의 성명 발표만이 있었을 뿐이다.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다. 실천승가회는 회원스님의 70%이상이 종회의원과 주지소임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전불련도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교계 시민단체들간의 연대가 어려워 쉽게 일을 벌려 놓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18책임자 처벌등에 관한 문제로 지금 전국은 몸살을 앓고 있다. 교수와 학생은 말할것도 없이 모든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항거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를 되찾자는 것이다.

불교도 이 역사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역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종단의 무관심은 차치하고라도 대외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할 재야단체들이 이렇듯 조용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기자회견 한 번 하고 성명서 한 번 냈다고 해서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광주에 사는 한 불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저히 참피해서 죽겠어요. 개신교나 천주교는 이 문제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불교는 아무 말도 없어요. 기껏해야 남이 하는 행사에 끼어들기나 하는 정도니… 불교는 원래 이런데 관심이 없나보죠?"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창간 1주년기념
4대 방장 큰스님 친견법회

현대불교신문사에서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위한 정법포교의 일환으로 수미산 여행사와 협찬, 4대 총림을 순례하며 방장 큰스님의 사자후를 듣는 특별법회를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사오니 이번 특별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무명에서 벗어나는 복연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 1회 : 1995년 10월 14일 영축총림 통도사 월하 방장 큰스님
- 2회 : 1995년 10월 28일 해인총림 해인사 혜암 방장 큰스님
- 3회 : 1995년 11월 4일 덕숭총림 수덕사 원담 방장 큰스님
- 4회 : 1995년 11월 18일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 큰스님

출발일시 : 매회마다 오전 7시에 조계사 앞에서 출발 ※ 최신형 전세버스 다량 보유
동참회비 : 1인당 2만원(매회 출발 4일 전까지 제일은행 131-10-000570 수미산여행사로 입금후 예약)
동참인원 : 매회마다 선착순 150명 마감
예약전화 : 02) 732-0181~3 •담당:조미경 대리·정미순

불교성지순례전문
수미산 여행사
국외여행업 등록 제 358호
국내여행업 등록 제 21-3호

수련원 양도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山水가 완벽함.
대형뻐스가 마당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이 되어있고 수련원 및 노후복지시설로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현재 신도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도록 고시생을 위한 방 21개와 일반 수양객을 위한 최신 현대시설을갖춘 17개의 방과 주지실 20평을 제외한 식당 및 일반불자를 위한 80평과 법당 130평의 건축물이 있음.

자세한 내력
■부 지 : 1만평
■건축물 : 법당 → 130평
식당칸 → 80평
요사 → 140평
방 → 50개

●참고 : 부동산 중개인 불필요
소요 당사자 연락바람

연락처 : 02) 233-2500

"古都 경주를 지키자" 여론 확산

고속철 통과 國監서도 반대…불국사 주지 무기한 단식

불국사 주지 설조스님이 경부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노선에 반대하는 무기한 단식기도에 들어가는등 교계의 고속철도심통과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지난달 25, 26일 문체부와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공보위소속 의원들도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의 부당성을 집중 추궁했다. <관련기사 6면>

지난달 27일 단식에 들어간 설조스님은 "경주 고도보존을 촉구하고 있는 양심적인 시민을 매도하는 경주시 당국과 일부 시의회의원들을 준엄하게 꾸짖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국사 등 경주지역 30개 사찰도 설조스님의 단식에 동조, '경주는 옛모습 그대로' '고속철도는 외곽으로'라는 대형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불국사 정토법당 경주경실련 등 경주지역 13개 신행 및 시민단체는 지난달 26일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연대모임'을 발족, 고속철도의 경주시 외곽통과를 주장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도 28일 '고속철도 경주통과 전면백지화를 위한 홍보와 현수막 설치' 공문을 전국 사찰에 시달했다.

태고종 총무원도 같은날 '고속전철 경주시 통과계획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고속전철의 대구~부산 구간 직선화를 촉구했다.

한편 25일 문체부 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 건설에따른 문화재훼손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특히 박종웅(민자) 이환의(민자) 정상용(국민회의)의원 등이 경주노선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했다.

주돈식 문체부장관은 이에대해 "고속전철의 경주도심통과시 문화자원손이 예상돼 외곽노선이 채택되도록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지하화구간의 연장안 △제방위에 철로를 놓는 안 △교량높이를 낮추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외곽노선 채택이 불가함을 시사했다.

〈김재경 기자〉

이사·결혼기피등 윤달풍속 '문제'

365일 부증불감…속설에 편승 말아야

지난달 25일부터 4년만에 시작된 윤달로 인해 요즘 사회각처에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윤달을 피해 결혼과 이사일을 앞당기거나, 미뤄 사회의 통상적인 질서를 흐리고 있다. 또한 윤달을 이용해 상술을 채우려는 상인들의 유혹에 현혹된 일부 불자들이 값비싼 수의까지 무분별하게 사들이고 있기도 한다.

심지어는 윤달이 오기전에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출산일까지 앞당기는 일까지 일어나 윤달로 인한 각종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윤달은 태음력에서 날짜와 계절의 차이가 클때 이를 조절키 위해 평년의 12개월에 한달을 더해 생긴 달이다.

각 사찰은 예로부터 윤달을 맞아 3사순례, 천도재, 생전예수재등 각종 행사를 펼친다. 또한 민간에서는 윤달은 액이 없어 미리 수의를 마련하는 풍습도 전해오고 있다.

이같은 사회현상에 대해 법현스님(원각사 주지)은 "윤달은 옛부터 불교의 한 방편으로써 덤으로 얻은 달을 수행에 더욱 전념하자는 의미에서 삼사순례, 예수재 등의 윤달 불사를 진행해 온 것"이라며 "불자들은 상업주의적인 사회현상에 편승하지 말고 윤달을 맞아 더욱 기도 정진해 바른 신행생활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달을 맞아 일어나는 현상들에 휩쓸리지 말고 불자로서 더욱 자중해야 할것이라는게 교계의 스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

'사찰등급배정 시행령'

조계종 첫 입법예고…분담금 차등배정

1천7백80여개에 달하는 조계종 사찰이 사격에 따른 등급이 부여 각 등급에 맞는 분담금이 배정된다.

조계종은 지난달 27일 '사찰등급배정에 관한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본사 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및 말사로 등급이 구분, 각 사찰의 총 수입액을 기준으로 사찰규모·입지조건·사찰환경개선 여부 등을 고려, 본사 21개 등급, 말사 29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심사위원회와 본사 주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사 직영사찰 직할사찰 특별분담사찰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말사는 교구심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심사위의 본심을 거쳐 등급을 확정시킬 예정이다.

총무부장 법타스님은 "이미 4백여 사찰의 재정실태가 파악되어 있다"며 "종회와 함께 재정실태파악위원회를 구성해 10월중에 사찰재정을 실사해 내년부터 분담금을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20일 사부대중의 입법과정 대폭 참여와 여론 수렴, 종단의 각종 법령 제·개정 과정에 대한 민주화,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찰등급배정에 관한 시행령(안)' 예고는 이 제도의 첫 시행이다.

'불교청소년의 해' 제정 기획위원회 결성모임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불기 2540년 불교청소년의 해' 기획위원회 결성모임을 지난달 27일 조계사 불교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 제정에 따른 교법사단, 전국교사불자회, 청소년교화연합회등 유관단체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12월 운영위원회(가칭) 구성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기획위원회 원장에 원혜스님(포교부장)이 추대됐다.

훈련병 2천여명 수계

논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는 지난달 24일 법당 뜰앞에서 훈련병 수계식을 거행했다.

매월 1회 열리는 이번 훈련병 수계식에서는 2천5백여명의 훈련병이 참석했으며 이중 2천여명이 계를 받았다.



◇본사 김광삼사장(왼쪽)과 불광산사 심정스님(오른쪽)이 협정을 맺은뒤 성운스님 휘호를 펼쳐보이고 있다.

본사, 대만 불광산사와 교류협정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와 대만 불광산사(주지 심정)는 지난달 26일 구룡사에서 불법홍포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고 협정서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김광삼사장과 심정스님은 협정서를 통해 앞으로 출판물, 정기간행물, 서지정보, 기사를 교환하며 연구원 교류, 연구 및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심정스님은 성운스님 휘호와 〈보문(普門)〉〈각세(覺世)〉 합본을 본사에 전달했다.



◇구례 화엄사는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부처님사리를 비롯 불구 일체를 연말까지 일반에 공개한다.

화엄사 사리친견 인파 줄이어

서오층석탑 발견 22과 전시…사진전도 열려

구례 화엄사(주지 종열스님)의 부처님사리 친견대법회가 오는 년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친견하려는 불자·일반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부처님사리는 8월17일 西오층석탑 해체·보수작업 도중에 발견된 것으로 모두 22과에 이른다. 서오층석탑에서는 부처님사리외에도 신라시대 화엄경 사경으로 추정되는 지류뭉치와 사리장엄구, 청동제 불상 금형틀, 칼, 금동제 방울등 모두 16종 72점의 국보급 유물이 대거 발견됐으며 이 모습을 담은 사진전시회가 보제루에서 함께 열리고 있다.

종열스님은 지난달 24일 사리친견 입제식에서 "외형적이고 행사위주의 사리친견 대법회가 아니라 불자들 가슴가슴마다 부처님의 깊은 사상의 울림이 될 것"이라며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광명정대한 세상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혜은·오공스님등 멸빈

조계종 초심호계위

주간 「시대불교」 발행인 혜은스님이 멸빈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위원회(위원장 월서스님)는 지난달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혜은·오공·진관스님은 멸빈 처리하고 사찰재산을 불법처분한 흥룡사 전주지 일각스님, 정암(승가대 전총무과장) 보장·백담스님 제적, 성일스님(흥룡사 전주지)에게 공권정지 3년을 징계했다.

조계종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 첫 워크샵이 오는 11일 오후 2시~5시 '지방승가대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강화 마니산 改名 교계·주민 '반발'

인천광역시 '마리산' 결정…행정소송 제기 움직임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가 1천년이상 사용하던 강화 마니산(摩尼山) 지명을 '마리산'으로 개명키로 결정해 지역주민과 불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마니산정기 계승발전보존회 박덕성회장은 지난달 25일 불교방송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4월과 7월26일 강화군과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가 각각 강화 마니산을 마리산으로 개명키로 한 것은 전혀 근거없는 왜곡된 지명으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며 "서명운동과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화군과 인천시가 마니산 지명을 개명하게 된 것은 기독교계통 단체로 알려진 마리산이름 되찾기추진위원회가 "마니산 지명은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을 위해 마리산에서 바꾼 것이다"며 지명 개명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대해 박회장은 "마니는 불교에서 악을 없애는 무한한 힘을 지닌 보주로 불교 최고의 경지인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선조들의 뜻이 담긴 지명이다"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고지도인 팔도총도, 조선전도, 강화지도, 대동여지도 등에 정확히 마니산이라 표기되어 있어 일제에 의해 개명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마니산 지명 개명은 국립지리원 중앙지명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으며 마니산 정기 계승발전 보존회를 비롯 마니승조회, 강화불교사암연합회 등이 마니산 개명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구독신청: 737-0693

범어사, '아파트 건설' 허용

15억 불사 경동건설 부담 합의…일부 신도 강력 반발

최근 범어사(주지 정관)와 경동건설(사장 김재진) 양측이 '층수를 낮춰 아파트를 건립케 하고 범어사 불사 소요경비를 경동건설측이 일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상호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어사 경동아파트 대책위 집행부는 지난달 23일 휴휴정사에서 본말사 주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법적대응으로 아파트 건립을 막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경동건설측과 이같은 내용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어사 부지에 대규모 불교회관 문화시설 건립과 4차선 도로신설 등의 불사에 소요되는 15억 상당의 측량경비를 경동건설측이 지원해 준다면 범어사는 5층 정도 층수를 낮춰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당초 아파트 건립의 전면 백지화라는 입장을 뒤집은 협상안에 대해 신도와 일부 스님들은 범어사가 경동건설측과 야합했다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티벳 사추 린포체 초청법회

17일 용인 동도사

경기도 용인 갈마산 동도사(주지 혜성스님)는 오는 17일부터 2일간 동도사 대법당에서 '티벳 라마 사추 린포체 초청대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 초청된 사추 린포체는 제5대 린포체로 티벳 도크함에서 출생했으며, 현재 14세로 체계적으로 불법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혜성스님은 "불은에 보은하고 많은 불자들에게 보다 큰 불법의 인연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온 나라에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일기원 영산대재

의정부사암연합회(회장 김혜승)는 의정부시민의 측제인 회룡문화제를 맞아 '남북통일 기원 영산대재'를 오는 6일 의정부 시청앞 잔디광장에서 봉행한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포토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856-3280

•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및 법문 모음집 •

깨침의 노래

한권의 책으로 수많은 고승들과 만난다!!

◘ 총 380여수의 「깨침의 노래」국내 최초 출간!!
한국과 중국을 통틀어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법문을 총망라한 「깨침의 노래」 불교계 최초 출간!!

◘ 개인·단체·학교·사찰 단위로 단체 주문 쇄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후 읊은 큰스님들의 오도송과 열반송, 큰스님들의 행장을 말해주는 법문 등을 편저자 권성구님이 전국 사찰을 수십년간 순례하여 모은 380여수의 주옥같은 노래!!

◘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읽어야 할 책!!
「깨침의 노래」는 스님과 불자들에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이며, 각종 공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을 씻겨주는 청량제!!



신국판/450쪽/값9,500원

◎ 연속 재판!! 절찬리 판매중!!
10부 이상 법보시를 원하시는 스님·불자·일반인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정가의 10%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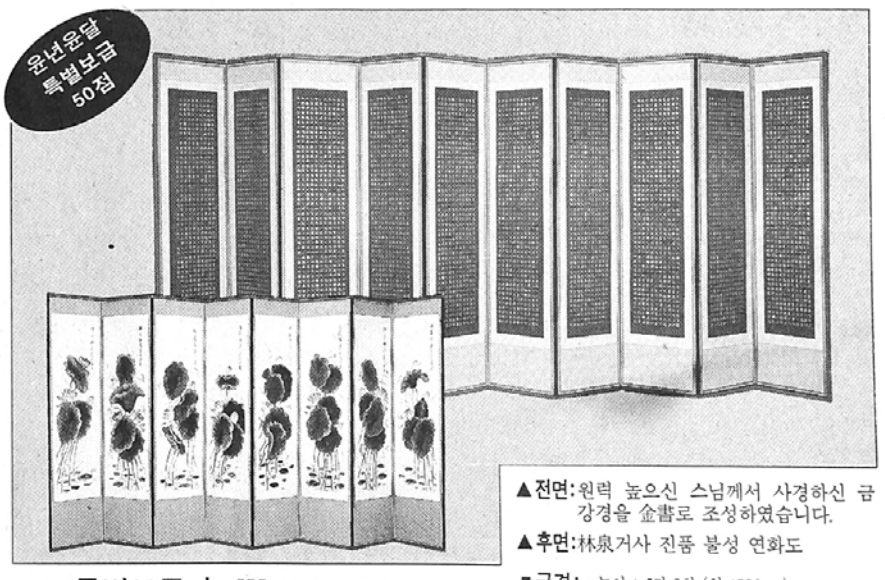
◎ '95 불교 출판계 스테디셀러!!
역대 고승들의 오도송·열반송·법문등을 소장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은 도서출판 사람들로 연락을 주십시오. 개정 보충판에 수록하겠습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전화:(02)725-6752~4
팩스:(02)725-6920

모시는 인연만으로도 큰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윤달맞이 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전면: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林泉거사 진품 불성 연화도
■규격: • 높이 : 5자 8치 (약 175.8cm) • 폭 : 14자 (약 424.3cm) • 재질 : 고급스기목/양면 고급비단/스모사 특후지

■특별보급가 ₩ 490,000
(현금 및 은행 신용카드)

※참조:후면에 팔상록(석가세존 일대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꾸며드립니다.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



非情非佛의 경지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신명과 그늘 함께있는 중도의 세계 찾고싶어

나는 풍물을 주제로 그림을 곧잘 그린다. 젊은 시절 풍물놀이에 심취해서 우리나라 사방천지를 돌아다닌적이 있었다. 풍물은 주눅들었던 젊음을 실컷 풀어주는 신명이 있어 좋다.

젊은 시절 걷잡을 수 없이 끓는 마음을 가졌던 나는 풍물에서 탈은 가르침을 받았다. 시대에 저항하던 시절에 자칫 잘 못하면 버림받은 '어둠의 자식'이 될 뻔 했었거나, 병이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풍물은 내 마음을 크게 열어주었다. 신명은 제 생명의 에너지를 드넓게 확대하는 힘이 있다. 확대된 자아의 세계로 바깥 세상을 보면 그 안에 '더 큰 나'가 있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그 속에 이웃이 있고 민족이 있고 자연이 있고 우주가 있다. 확대된 자아로서 넓고 깊은 세계관에 다다르는 방편은 여러가지가 있으리라.

이곳 산골은 공해가 없어 좋다. 마치 산사처럼 청정하다. 텔레비전의 광고를 안 보아서 좋고, 거리에 낯뜨거운 젊은 여자의 다리통을 안보아서 좋고, 시끄러운 소음 같은 음악들, 메스꺼운 향수 내음, 자동차 매연, 신문 잡지를 안 뒤적거려서 좋다.

풍물에만 신명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주만물이 모두 재 묵승을 다하는 날까지 차오르다 스러져 간다. 젊은 시절 차오르는 신명세계에 불두했다면 이제 스러져가는 그늘세계에 찾아들고 싶다. 아니, 신명과 그늘이 함께 있는 넓고 깊은 세계, 불교에서 이르는 중도의 세계를 찾고 싶다.

아, 험한 길. 제대로 살아가기엔 너무 벅찬 인생길이다. 가도가도 끝이 안보이는 예도의 길이다. 산 속에서 논밭일에 집짓는 일을 하는 날은 차라리 행복하다. 밥 잘 먹히고 똥 잘 싸고, 잠 잘오는 날이면 어느새 내 생업이 되어버린 그림쟁이 일은 줄타기 곡대같다. 발 한번 삐긋해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질 것이다.

차라리 밥만 벌어 속세의 행복을 즐기면서 살거나, 주는 밥 먹어가며 도만 닦으려면 좋을텐데…. 非情非佛의 중도.

김 봉 준 〈동양화가〉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①

주부신행담

"아가씨 불교를 아세요" 기차에서 낯선 남자가 물은 말이 인연…

결혼생활 16년은 내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를 통해 그 지난 날들을 살펴보고 아직도 마음에 걸려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부처님과 스승님전에 고하고 그 부분들을 스스로 "꽉"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부란 남남끼리 만나서 서로 존중하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척척 들어주는 행복한 결합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마음을 열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서 들어주는 역할만 제대로 하더라도 그런대로 무난한 결혼생활을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이치를 알고는 있으나 참으로 실천이 되지 않더군요.

결혼생활 시작하여 첫 딸아이 백일될 무렵 둘째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은 몸도 마음도 몹시 힘이 들었나 봐요. 처음부터 우리 부부는 빈털터리로 서로가 사정을 알고 만나서 인생을 한번 개척해보자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가 어느날 교회의 장로님으로부터 〈싯다르타, 그 명상의 날개〉라는 책을 선물받아 읽고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켜 대한교과서라는 직장도 그만 두고 사귀던 여인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돈도 있는대로 다 써버리고 끼고 있던 반지까지 팔아서 써버리고 배낭 하나 둘러메고 헤매던 중에 부산까지 갔다가 부산 부곡동에 있는 석립사라는 절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남편은 마당을 넘고 탑을 쌓다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고 서울행 열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부산에서 의상실에 다니면서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며 아는 사람이 하는 계에 들었다가 계가 깨지는 바람에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래 범어사 뒤 법천사라는 사찰에서 맑은 공기와 물로 건강을 회복하고 양산 통도사에서 김현대 스님의 정성어린 보살핌과 부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내원사에 들어가서 공부할 생각 없느냐고 하셨지만 저는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스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의상실에서 일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는 강요하지는 않겠다시며 "다만 지금 네가 내원사에 들어가면 참 좋은 은사를 만나겠기에 부처님 공부 한번 해보라고 권해봤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 인사 올리며 의상실에서 다시 일한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가거든 시집이나 빨리 가거라"하며 웃으셨습니다. 의상실에 들아와 일을 하던 어느날 사촌언니 집에 다니러 가려고 열차를 탔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가 갑자기 하는 말이 '아가씨 불교에 대해서 아세요?' 이 말의 이야기 끝에 저의 연락처를 알려 준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불교얘기로 만난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곧바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들 걱정이 많았던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 살림살이에 9남매의 차남인 남편과 비록 결혼식은 못했지만 혼인 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첫아이를 가져서 입덧이 심했지만 경험도 없는 농사일 집안일을 해야하는 나날들이라 늘 바쁜 일과이다 보니 입덧은 그냥저냥 지나갔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따라 다니며 몸시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 재재 시어버님 시어머님의 "아가 몸도 무거운데 쉬어가며(한닥한닥) 하거라"하시는 말씀은 너무도 정겹게 들렸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때에도 들일 집안일로 바빴지만 쉬는 시간이면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는 것이 마음 뿌듯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들에 새참, 점심을 내어 갈 때에는 업손이 모자라서 아이를 보아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천으로 만든 길다란 띠로 한쪽끝은 아이허리에 묶고 한쪽끝은 집기둥에 묶어놓고 나갔습니다. 다녀와보면 아이는 혼자서 울다가 놀다가 지쳐 잠들어 있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애처로왔지만 그 생각도 잠시고 오로지 일에만 전념을 다 했습니다. 때맞춰 그해 홍수가 나 강가에 있던 우리 논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노력이 헛되이 무너져 암담한 순간이었지요.

오 정 숙 〈홍제동 정토포교원〉

농번기엔 일손이 모자라 아이를 기둥에 묶어두고 나갔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⑫

♦ The harshness of the (philosophical) views I have overcome, I have acquired self-command, I have attained to the way (leading to perfecting), I am in possession of knowledge, and not to be led by others; so speaking,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논쟁의 철학적 견해를 극복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도달하여 도를 얻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수행자는 이렇게 자신을 다짐하면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Without covetousness, without deceit, without craving, without detraction, having got rid of passions and folly, being free from desire in all the world,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탐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리고 조급해하지 말며, 혼탁과 미망을 남김없이 씻어 버리고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Let one avoid a wicked companion who teaches what is useless and has gone into what is wrong, let him not cultivate (the society of) one who is devoted (to and) lost in sensual pleasures,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의롭지 못한것을 보고 못 본 체하는 그런 나쁜 벗과는 가까이 말라. 감각적인 탐욕만을 일삼는 그런 벗과도 가까이 하지 말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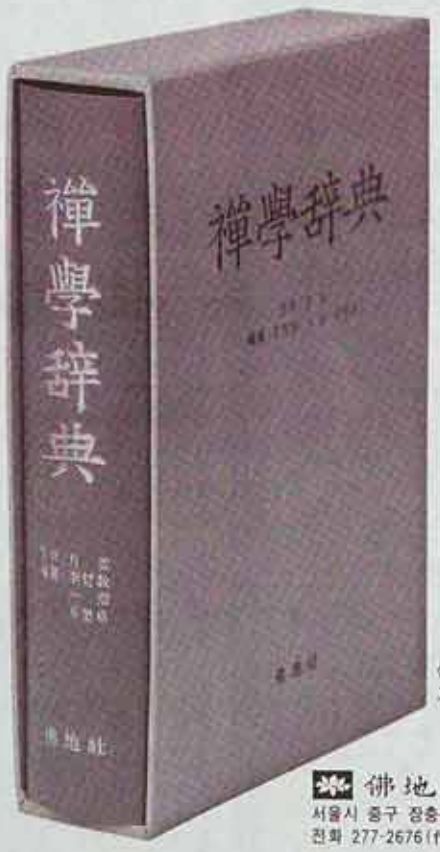
* subdue 이기다, 정복하다.
* covetousness 탐욕
* crave 갈망(열망)하다
* self-command 자제력, 극기

한명우 기자

8년만에 편찬작업 회향… 선어 · 공안 · 인명 · 지명 · 서명 · 사원명 등 9,100여 표제어 수록

禪學辭典

祖師의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뗏목이 필요합니다



신국판 / 1,000쪽 / 고급 양장케이스 / 값 45,000원

佛地社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전화 277-2676(代) 팩스 278-9118

편찬 내용

1. **용어**는 각종 선문헌에 실려있는 선어, 청규, 성구, 구어, 속어 등 5,156 항목을 선정하여 내용과 용법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2. **인명**은 선종의 어록과 전기 관계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중에서 수행 교화 저술등에 큰 공적을 남긴 1994년까지의 인물 2,253명을 선정해, 생몰년 · 소속종파 · 속성 · 법호 · 출신지 · 사승 · 수행경력 · 가풍 · 저술 · 시호 · 관계자료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3. **지명**은 저명한 선승들의 활동 지역과 사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32항목을 골라 옛지명과 현대의 지명을 함께 밝혀 놓았습니다.
4. **서명**은 선에 관한 간본 · 사본 · 돈황문헌을 중심으로 705항목을 선정해 그 문헌이 실려있는 총서 내의 권차와 편차를 해설문의 끝에 밝혀 놓았습니다.
5. **사원명**은 저명한 선승이 주석했던 사원과 유형 무형의 선문화 유산이 있는 사원 157항목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공안**의 명칭은 중복과 혼용을 가려 695항목으로 정리해 문답하는 인물과 내용을 출전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명칭은 공안집의 예를 따랐습니다.
7. **편찬 자료**로는 그동안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국내 선불교 관련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발행된 선종관련 문헌과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특 징

1. 선종 관련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 총 9,100여 항목을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편찬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2. 기존의 사전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 선종과 관련된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수록 해설한 우리의 선종사전입니다.
3. 각 항목마다 해설의 말미에 출전과 예문을 소개해 상세한 주석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선어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당 · 송대의 구어와 속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풍부한 어문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방대한 선학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편찬한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선학참고문헌일람 ▲선종사지도 등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부록으로 엮었습니다.

부 록

1. **선종사연표** : 국내, 국외(인도 중국 일본)순으로 선기의 주요 사실을 B.C. 544년부터 A.D. 1994년까지 정리해 수록하였습니다.
2. **선종법계도** : 선종의 법맥계승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선종의 법계도는 태고 보우 이래 정허 휴정의 법계를 주안으로 살아 수록하였습니다.
3. **선종사지도** : 불교가 전개된 주요 지역의 산이름과 사원 명칭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서목록** : 선종과 관련된 경 · 율 · 론의 주요 전적과 선종 문헌들을 나라 · 종파 · 시대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선학참고문헌일람** : 국내외의 선학사전및 일반 불교사전 · 연표 · 인명사전 · 목록 등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감 수

월 운 스님 봉선사 회주 / 前 동국대 역경원 원장

"경에 두고 살펴보니, 남방의 선장 연대 총지 고증 내지 법어표기와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절하게 손질되어 있어 쉽로 추옥같다는 말로 표현함이 과하지 않을 것 같다."
('감수의 말' 중에서)

편 찬

이철교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중앙도서관 시서과장
임 지 / 해인사 강원및 율원 졸업 • 수국사
신규탁 / 일본 동경대 문학박사 중국불교사 연구 • 연세대 철학과 교수

출판기념회 • 일시 : 1995. 10. 6(금요일) 오후 6시
• 장소 : 충무로 쌍용빌딩 18층(270-5201)

전국 대형서점과 사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로 다량주문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 277-2676)